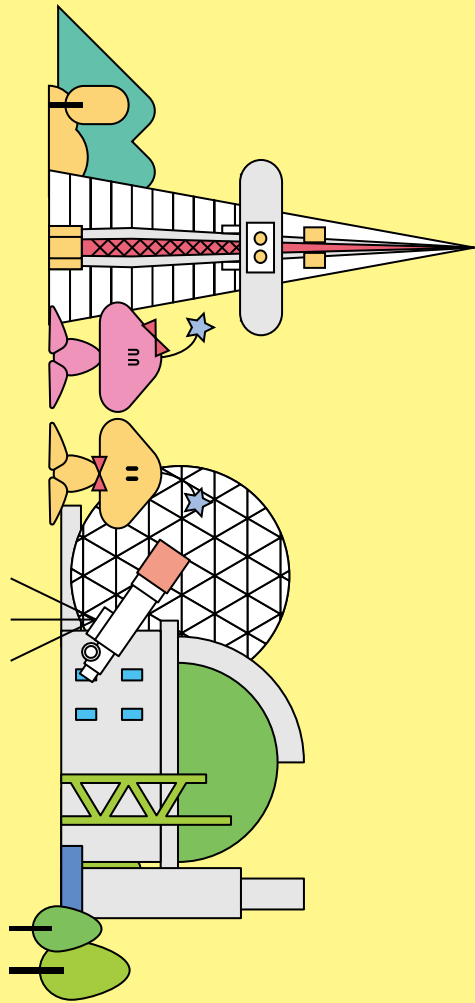


# Daejeon is U



## 대전 스토리텔링북 DAEJEON STORYT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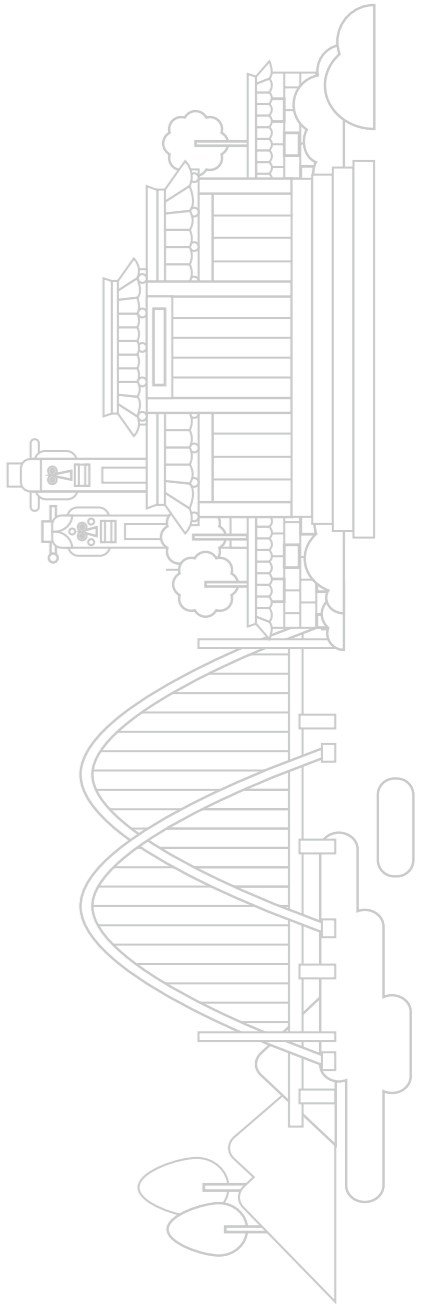


✧ DAEJEON STORYT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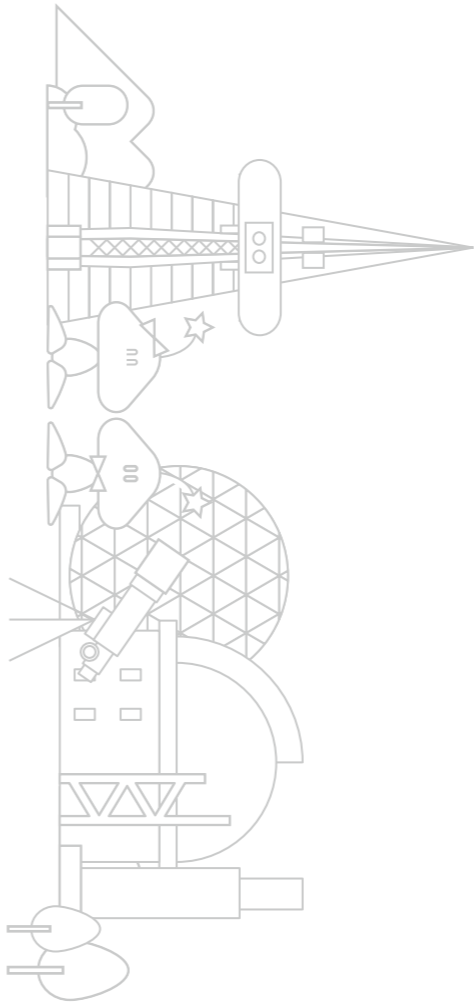
### 대전관광 안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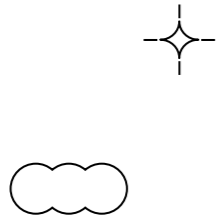
- 대전트래블라운지 042-221-1905  
070-4278-6377
-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861-1330
- 복합터미널 관광안내소 042-633-1355
- 서대전역 관광안내소 042-523-1338



# Daejeon is U

대전  
스토리텔링북  
DAEJEON STORYTELLING





1

04



동창회는 대전이쥬

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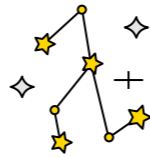
도시여행자라면 대전이쥬

38

3



가장 예쁜 날 대전이쥬



86

6



애들 풀어놓을 땐 대전이쥬

72

5



루브르가 멀면 대전이쥬

52

4



삼대가 나란히 대전이쥬

108

7



재충전은 대전이쥬

118

8



우리끼리 드라이브는 대전이쥬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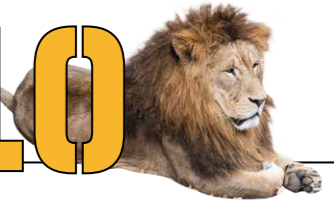
9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전이쥬

140

10



가족과 함께 대전이쥬

DAEJEON  
STORYTELLING

VOL.  
**1**

# 동창회는 대전이주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자주 걷던 길목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대전 원도심이여! 이네요. 어느 도시나 옛 도심이 가진 매력! 있죠. 대전에는 100여 년 전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도심 속 낭만을 더합니다.

대전역을 기점으로 9개의 건물이 도보로 이어져있는 코스에서 오늘은 여중 동창들과 함께 그 시절 모던보이를 찾아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근대문화  
권역

####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산업은행
- 목적교
- (옛)대전부청사
- (옛)국립농수산물품질원, 현대전창작센터
- 대흥동성당
- (옛)대전여중 강당, 현대전갤러리
- (옛)충남도청사 본관, 현대전근현대사전시관
- (옛)충청남도 관사촌 現테미오래
- 으능정이 스카이라드

● ● ●

#### 여행준비

1년에 한 번 만나면 밥과 수다만으로도 꽉 차버리는데 요. 이번에는 제가 여행 기획자를 자처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 물고 깔깔거리며 쏘다녔던 거리를 다시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대흥동·은행동의 매력을 다시 깨워보려고요. 사진관 예약도 미리 해두고 새로 단장했다는 테미오래는 해설 프로그램도 곁들입니다. 도보 여행에 발 편한 운동화는 필수겠죠? 이제 약속시간이 가까워졌네요. 어서 나가보겠습니다.

● ● ●

####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관사촌까지

여유 있게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부산과 울산 친구 둘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만 봐도 그저 좋습니다. 잠시 서울살이 중인 친구도 도착했네요. 어느새 이렇게 한번 모이는 일이 연중행사가 됐습니다. “눈감아도 흰히 보이는데를 가자고?”라고 하면서도 엉덩이는 벌써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도보여행 전 중앙시장에 들러 간단히 요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떡볶이부터 목사발, 고소한 전까지 중앙시장 먹거리를 생각하니 절로 군침이 돕니다.

● ● ●

#### ‘흐름의 도시’ 대전이 기억하는 100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는 대전역을 기점으로 옛 충남도청-옛 충남도청 관사촌(테미오래)-대흥동 성당 등을 잇는 5km 남짓(약 1시간 40분)의 도보 코스인데요. 중앙로 1번가라는 명성답게 여전히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 코스에 걸쳐진 삼성동, 중앙동, 은행동, 대흥동은 명실상부 대전의 중심가이죠. ‘시내 가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가 대전에서는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동 인쇄거리, 중앙동 한의약거리는 대전 중앙시장과 함께 번성해 지금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여전히 청년들의 성지인 은행동과 대흥동은 성심당을 비롯해 으능정이 스카이라드, 로드샵, 소극장과 미술관·화방 등이 밀집해 있어요. 중부권 최대 쇼핑타운(중앙로 지하상가)까지 길아래로 연결돼 있어서 한 번 발길이 닿으면 시간 도둑이 따로 없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근대문화의 거점이 된 것은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철도의 부설과 함께 경부와 호남을 잇는

분기점이 되면서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모여드는 대도시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흔히 대전을 과학도시, 행정도시, 교통의 도시라고들 하는데요. 대전의 한 문화해설가는 ‘흐름의 도시’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3가지가 막힘없이 흐른다는 것인데요. 경부-호남의 분기점이 되어주는 기차길,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는 사람, 그리고 대전의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을 두고 하는 명해설이죠. 대전발 0시 50분 호남행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가락국수를 뜨겁게 넘겼던 그 시절부터, 대전 원도심의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선시대 금고가 아직도?

대전역에서 목적교 방향으로 곧장 5분쯤 걸었을까요. 지금은 안경원이 된 (옛)산업은행을 근대 건축물 중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인상평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풋내기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묵직한 아우라가 풍겼거든요. 안경원이 되기 전에는 은행건물로 쓰였던 만큼 견고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그 진가가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금고 입구의 외벽을 부수려다 지쳐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만주랑 독일에서 수입된 화강석과 테라코타로



지어진 건물이라.” 한 친구가 해설사다운 설명을 덧붙입니다. 알고보니 안내판에 적혀있는 내용이었는데, 깜빡 속을 뻔 했습니다. 안경원에는 조선 식산은행 때 사용됐던 금고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금고의 문고리를 잡고 소원을 빌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은 (안)비밀입니다.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산업은행  
 ㉠ 동구 중앙로 198

### 초대형 조각품을 슬쩍 올려둔 듯

목척교가 보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전천 위에 초대형 예술 조각품을 슬쩍 올려놓은 듯 합니다. 이 다리 아말로 흐름을 완성한 가교인데요. 도시의 번성은 ‘잇

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전을 분기점으로 삼았던 전국 방방곡곡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행정 컨트롤타워였던 (옛)충남도청도 이 다리로 이어진 도로 끝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동양백화점과 홍명상가가 목척교 부근에 자리했었는데요. 당시 두 건물은 이견이 없는 대전의 랜드마크였죠. 대전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떠오르는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던 날, 첫 소개팅을 나갔던 날,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던 포장마차, 하릴없이 천변에서 시간을 보냈던 시절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2009년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나무 줄기세포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



물로 현대화되었죠. 목척교라는 이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요. 이 징검다리를 아침 저녁으로 오가던 새우젓 장수가 그 한 가운데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던 모습이 마치 목척(木尺, 나무로 만든 자)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목척교  
 ㉡ 대전 동구 중동

### 현대의 옷을 입은 대전 행정 1번지

학창시절 주로 쏘다녔던 으능정이 거리를 뒤로하고 다시 오늘의 테마에 집중해봅니다. 중앙로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도 근대건축물이 자리해있습니다. 모르고 가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죠. 1996년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에 알루미늄 패널을 덧붙였는데요. 1936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전 행정의 1번지로서의 위상만큼은 지울 수 없죠. 처음 이 건물은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하며 1936년 부청사로 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없던 당시만해도 3층짜리 건물에 통 유리창 번쩍이던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테죠. 이후에도 대전상공회의소·대전공회당·대전시청·미군정청 등으로 사용되면서, ‘리’에서 ‘광역시’로 변모해온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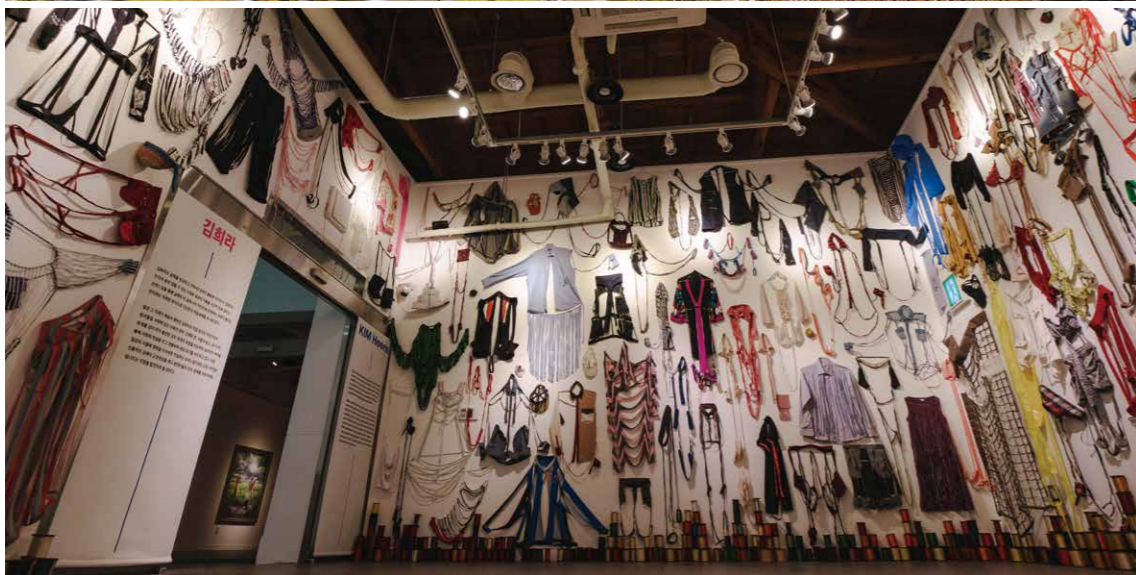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대전부청사  
 ㉢ 중구 중앙로 154



### 1950년대 모던보이와 함께 작품 속으로

구 대전부청사를 끼고 성심당 골목을 지나면 사거리 모퉁이에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작은 앞마당과 아치형 출입구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죠. 등록문화재 제 100호로도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 충청지소’입니다. 지금은 계절마다 달마다 재미있는 기획전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큰 길 건너편에는 대흥동 성당이, 사거리의 작은 도로 너머로는 애견거리가 형성돼 있는데요. 도심 한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아득하고 고고한 분위기는 독특한 건축 방식에서 나옵니다. 결원아치(반원보다 작은 원호형의 둥근) 형태의 현관과 모임지붕, 건물 외벽에 돌출된 상자 모양의 창틀,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위에 설치한 수직 블라인드 등이 돋보입니다. 이 같은 건축 수법은 20세기 중반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찾던 모던보이가 금방이라도 걸어날 법 합니다. 여기에서 관람하는



전시는 여느 미술관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됩니다. 신예 작가들의 신선한 모험과 트렌디한 컬렉션이 주를 이루는데요. 내부의 미로같은 공간, 벽돌, 마감재가 전시품과 묘한 콜라보를 이루면서 195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국립농수산물품질원, 현대전창작센터

📍 중구 대종로 470

☎ 042-270-7390

🕒 10:00~18:00 (입장 17:30까지)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100년의 역사 다시 불러낸 부통 신부의 그림

대흥동에서 열이 빠져 놀다가도 저녁 6시가 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성당의 종시기가 종을 울리는 시간이거든요. 1962년 건축 당시 대흥동성당은 대전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요. 지금은 문화예술의거리와 상점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 명동성당이 있다면 대전 대흥동에는 대흥동성당이 있는 셈이죠. 서로 다른 것이 매치됐을 때 주는 영감은 남다른데요. 오늘은 마치 타임랩스 영상처럼 ‘모두 변해도 나는 여기 그대로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사가 없는 틈을 타 내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원색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잘 어우러지는 벽화였는데요. 1963년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수도자인 고(故) 앙드레 부통 신부가 두 달에 걸쳐 완성한 10점의 그림입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2020년 5월 김경란, 남명래 작가의 손으로 8점이 재현되었다고 해요. 두 작가는 2019년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년 반 이상 이 작업에 매달렸다는

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한 획, 한 점, 부통 신부님의 색을 찾아내는 일이었지요. 색을 찾아내는 일이 작업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찾아본 두 작가의 이야기가 그림을 오래도록 쳐다보게 만듭니다.

대흥동성당 건축물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본당 건물은 한국 성당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당 건축은 주로 벽돌을 올렸는데요. 대흥동성당은 벽돌 대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했고, 여기에 고딕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수직 창문과 종탑, 철판 구조로 돌출된 주 출입구 지붕 디자인 등이 새로운 기술적·미학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뒷마당에 자리한 다소 투박해보이는 성모상은 1954년 세워졌는데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시대, 억척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를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대흥동성당

📍 중구 대종로 471

## 문화예술의거리 품격을 높인다

대전여중강당으로 향하는 길은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인데요. 소극장, 화방, 작은 미술관들이 골목골목 들어서 있어요. 이쁜인가요. 기본 20년은 넘긴 맛집들과 주인장의 개성이 담긴 카페와 상점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죠. 친구들과 긴 고민에 빠집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칼국수와 유부김밥, 매콤한 두부 두루치기, 새콤한 냉면 중 오늘은 칼국수가 낙점입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세를 얻어서 가게들 모두 웨이팅은 기본이 됐는데요. 이런 걸로 세월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득한 배를 두드리며 대전여중강당으로 향합니다. 바로 옆에는 대전평생학습관이 자리잡고 있어요. 서로 연결된 앞마당에는 별별 조각상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걷기 좋게 닦아놓은 문화예술의거리와 어우러져 다들 한껏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전여중강당은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면서 대전갤러리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전창작센터, 이안갤러리 등과 함께 대흥동의 문화예술 품격을 제대로 세워주고 있죠.

안내판의 QR코드를 찍어보니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페이지'로 연결되어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그대로 대전여자중학교의 강당으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학교가 생긴 해가 1921년, 강당은 1937년 준공됐으니 근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로도 손색이 없죠. 대전시에서 문화재자료 제46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초가지붕을 닮은 아르누보풍의 지붕선이 참 우아합니다. 지붕처마 끝을 파도치는 모습으로 이어 생동감을 더했고요. 외벽은 고전주의적인 수법(치형쌓기)으로 벽돌을 올려 처마선을 받쳐주는 듯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을 강조한 건물로 연출됐습니다. 내부는 강당답게 마룻바닥으로 이뤄져있고 구조물 없이 통으로 쓸 수 있어서,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전시를 매개로 자주 만남을 갖기도 해요.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대전여중 강당, 現代전갤러리

📍 중구 중교로 56

☎ 042-220-0514 (대관 및 전시 문의)

### 영화 속 그 장면 찾는 시간여행

이 정도 규모의 근대건축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영화 <변호인>의 법정 건물 장면도, 드라마 <추리의 여왕> 속 미스터리한 장면도 이 건물에서 탄생했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계단, 벽체, 타일, 문틀 등이 80여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러브콜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배우들의 열연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남다른 포스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짓기 시작해 1932년 준공, 이후 1960년도에 3층으로 증축돼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장식이 거의 배제된 단순한 외관에 평지붕 형태로, 마감은 당시 유행했던 밝은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권위적 성격의 청사건물 전형으로서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제 제18호로 지정됐죠. 건물의 평면도 당시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ㅼ자형'으로 복도에 들어서면 미로처럼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해요.

내부 건축 양식은 권위와 우아함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아치형 벽면을 요철 모양으로 파내서 장식하고, 기둥과 기단의 각을 부드럽게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넓아서 둥글어진 계단 하나 하나, 개방감이 좋은 날렵한 창틀, 창문의 오래된 황동고리 등의 디테일이 근대건축물의 무드를 완벽하게 완성해주고 있죠.

요즘은 영화 속 장소를 찾아보러 오는 여행자부터 시민, 창작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는데요. 충남도청이 이전한 이후 대전시민대학,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기획전시실, 만화·웹툰 창작센터 등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2층에 개방된 옛 도지사실에서 인증샷을 찍어보기로 했는데요. 공무원이 썼던 각동 집기류를 구경하고 집무실 의자에도 앉아봤다가 가을햇살이 들이닥치는 테라스로 향합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왔던 중앙로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일하면 뭐든 술술 풀리겠다."는 한 친구의 말과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찰칵'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 (옛)충남도청사 본관, 現代전근현대사전시관

📍 중구 중앙로 101

☎ 042-270-4537

🕒 09:00~18:00





## 비밀의 정원 속, 전국 유일 관사촌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온라인으로 해설프로그램을 예약해두었거든요. 숨 가쁘게 가고 있는 곳은 테미오래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사촌입니다. 옛 충남도지사가 머물던 충남도지사공관을 포함해 총 11개의 관사가 자리 잡고 있죠.

해설프로그램이 진행될 충남도지사공관부터 왔습니다. 도지사가 머물렀을 때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비밀의 정원'이라 불렀다는데요. 정말로 예쁜 정원이 손님을 반깁니다. 테미오래는 시민 공모를 통해 당선된 명칭이라고 해요. 관사촌이 위치한 테미고개의 이름을 빌려 '테미로 오래'라는 뜻과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죠. 경청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학창시절 수업 받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공관은 안방, 다용도실, 찻방, 부엌, 여종업원 방, 남종업원 방, 2층 다다미방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일본의 복도 문화와 다다미방부터, 한국의 마루까지 두 나라의 건축

적 특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또 각 방마다 대전의 근현대사나 근대 건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여느 부잣집을 엿보는 기분이었다가, 이내 역사와 나라를 넘나드는 시간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립니다.

테미오래로 문을 연 이후부터는 SNS 속 감성사진 단골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11개의 건물이 각기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임과 만화책에 푹빠져 뒹굴거릴 수 있는 집, 근현대로 이어지는 문학작품 전시관, 어덜트들의 개인취향을 저장하는 집, 저 멀리 네पाल을 떼다놓은 듯한 테마관 등등이 여행객을 맞이해요. 기획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날 때마다 들어도 좋겠다"고 친구들과 한참을 떠들입니다.

원도심 근대화탐방로 - (옛)충청남도 관사촌 現테미오래

📍 보문로 205번길 13

☎ 042-335-5701

🕒 하절기(3~10월): 오전 10:00~17:00(입장마감 16:30)  
동절기(11월~2월): 오전 10:00~16:00(입장마감 15:3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걸어다니며 즐기는 로드쇼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는 저녁 우리는 으능정이를 찾았습니다. 스카이라드가 어둠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바빠 길을 걷던 사람들도 하나둘 멈춰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카이라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비바비전(Viva Vision) LED쇼를 벤치마킹해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값비싼 비행기 표 없이도 LED 영상쇼를 대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하절기는 7시)부터 시작된 영상은 웅장한 음악효과와 화려한 그래픽쇼가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네요. 상영을 마치면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참여 콘텐츠가 이어지는데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카이라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 우리 사총사가 만난 날을 기념하는 문자를 전송합니다. 스카이라드는 바로 아래의 거리를 그대로 비춰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저기 있다"며 서로 깔깔대는 모습이 영락없는 여중생들 같네요. 이대로는 아쉬우니 대흥동으로 넘어가 술이나 한 잔 할까 합니다.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좋고 묵혀둔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술집도 좋을 것 같네요. 사총사가 함께라면 어딘들 안 좋겠어요?

으능정이 스카이라드

📍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DAEJEON  
STORYTELLING

VOL.  
2

# 도시여행자라면 대전이주



니팔버지를 입은 '옛날 사람'이 아홉월 낡한 그 곳을 슬랙스 차림의 '요즘 애들'이 걷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지워진 곳. 대전의 대흥동에 가보려 합니다.





대흥동  
문화예술  
권역

####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 갤러리
- 카페
- 소극장
- 성심당
- 소재동 철도관사촌
- 목척교 커플브리지



#### 여행준비

이방인처럼 다른 도시를 헤매기로 했다면, 차려입을 것도 신경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오늘은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DSLR도 꺼내 들었습니다. 낯설고 정겨운 골목골목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죠.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가벼운 배낭을 두르니 제법 도시여행자 티가 나네요.



#### 대전역에서 대흥동 문화예술 골목까지

동광장 서광장. 다른 도시에 도착했다는 첫 시그널이죠. 스마트폰도 좋지만 이럴 때는 지역사람에게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서광장으로 나가서 그대로 직진해도 되고, 지하상가를 쪽 걸어가도 나와요.” 20분이면 걷기에 괜찮은 거리네요. 요기를 하고 길을 나설까 합니다. 역사에는 아직도 가락국수집이 남아있네요. 대전역은 1980년대 호남선과 경부선의 유일한 환승지점이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환승시간에 승객의 허기를 뜻뜻하게 달래준 식사였다지요. 고명이라고는 고춧가루 몇 알과 마른 생김 뿐이었지만, 오로지 기차를 탈 때만 먹을 수 있었던 국수였으니 요새로 따지면 기내식과 다름없었네요. 저도 후루룩 한 술을 뜨고 지하상가로 내려갑니다.

#### 로컬 예술가들의 성지

대전의 관문이자 명물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죠. 지금 걷고 있는 지하사가 말입니다. 대전역부터 시작해 지하철 중앙로역, 중구청역까지 이어져있는데요. 지금은 2개의 지하상가(역전지하도상가, 중앙로지하상가)가 목척교를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지만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 1,000여 개의 상점가를 유혹 없이 빠져나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중앙로역과 중구청역 사이에 오늘 최종 목적지인 대흥동이 있습니다. 출구가 너무 많아서 여행자라면 길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대전 사람들은 ‘그 근방’ 어디로 나갔을 수도 있지만 초짜인 우리는 중앙로역 3번 출구로 걸어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오른쪽 블록은 모두 대흥동 일대예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든 맘껏 헤맬 준비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콧 찍어둔 맛집도, 눈여겨 둔 카페도 없습니다. 그저 걸어볼 생각인데요. 걷다가 만나는 무엇이든 눈과 귀에, 그리고 카메라에 담으려고 합니다. 500m쯤 걸으면 건너편으로 성심당 케익 부띠끄가 보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면 은행동이에요. 큰 길들 사이에 두고 형성된 대흥동과 은행동 상점이 일대는 대전 원도심의 쌍두마차 격인데요. 은행동이 중·고등 학생들의 천국이라면 지금 향하는 대흥동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놀이터에 가깝죠. 은행동에 성심당과 스카이라드가 있다면 대흥동에는 갤러리, 필방, 소극장이 있습니다. 상점들의 성격이 대비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은행동에는 값싼 분식과 길거리 간식, 프랜차이즈 카페, 재미있는 로드샵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대흥동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주인장의 개성을 한껏 뽐어내는 독특한 카페들이 훨씬 사랑받고 있어요. 대전이 자랑하는 근현대건축물 중 대흥동 성당과 대전여중강당도 대흥동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흥동이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름을 얻은 건 시간과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오원화랑은 대전 최초의, 최고(最古)의 화랑으로 1975년 5월 대흥동에서 터를 잡았어요. 신진 작가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숙원은 장장 45년

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32년의 대흥동 시대를 마감하고 2006년 대전의 신도시인 둔산동으로 이전했지만 그 궤적은 여전히 짙게 남았습니다. 이공갤러리, 쌍리, 현대갤러리, 우연갤러리, 갤러리 이안, 꼬시꼬시 등 작은 갤러리들이 현재 오원화랑의 뒤를 이어 대흥동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근대건축물로 보존되고 있는 대전여중 강당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오원화랑이 생긴 이후 1980년대부터 하나둘 들어선 필방, 표구사들도 ‘문화예술의 거리’ 명맥을 독심 있게 이어주고 있는데요. 예스럽게 정비된 화방골목을 따라 가면 얼핏 묵향이 스며나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갤러리를 발견한다면 이 시를 한 번 떠올려 봐도 좋겠습니다. 대흥동의 갤러리와 표구사, 화방은 시간을 간직한 사람과도 같거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갤러리)

📍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일원

### 그 많던 다방은 어디로 갔을까

세잔, 르누아르, 드가, 피카소, 마티스….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프랑스 파리는 낭만의 도시가 됐습니다. 자유롭게 남다른 영혼들은 작업을 마친 후나 심상이 떠오르지 않는 날엔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커피나 술잔을 기울이고, 한껏 떠들어대며 잠재된 내면을 분출했죠. 카페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어준 것인데요. 대흥동에도 분



명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갤러리를 지키던 미술상, 이름 꽃을 그려주는 화가, 표구의 고수가 옆 자리에 앉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흥동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방문후기를 검색하는 건 열을 잃고 하나만 얻는 겁니다. 적어도 세 집 건너 하나쯤은 문을 열고 싶은 카페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두죠. 예를 들어 다방 같은 걸 만난다면 어떨까요.

옛 산호다방 건물은 대흥동 카페거리의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낡은 외벽 위로 옷걸이에 걸린 흰 스웨터 하나가 대형벽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2012년 대전시립미술관이 진행한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전’으로 탄생한 그림입니다. “나 대흥동에 다녀왔다”는 인증 샷이 가장 많은 장소이기도 해요. 이제는 빈티지한 카페로 다방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발자국으로 대흥동 카페지도를 만든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이제 카

페 순례를 떠날 시간. 슬기로운 카페 생활 지침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곳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면, 결정 장애가 조금은 해소될 거예요.

대흥동에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을 전시해둔 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어덜트 붐이 막 일던 시기에 생겼을까요? 혹은 주인장이 지독한 장난감 마니아일지도 모르죠. 같은 취향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은밀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주택 집을 그대로 살려 개조한 카페들은 대흥동 카페거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흔한 통유리나 하얀 벽이 없다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으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을 거닐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붉은 벽돌을 뒤덮은 덩굴 사이에 카페로 들어가는 문을 보았습니다. 분명 평범한 2층 주택 집이었는데 쪽문 옆에 메뉴판을 세워 뒀네요. 직장인·대학생들이 거주할법한 원룸빌라도 그



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건물 1층에서 카페, 원테이블 레스토랑, 디저트 가게, 스몰 바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안마당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카페에서 잠시 쉬어갈 생각입니다.

####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카페)

📍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일원

### 대흥동 한가운데 연극판이 벌어지다

‘서울에 혜화동이 있다면 대전에는 대흥동이 있다.’ 지방에서 연극인이 설 자리는 많지 않죠. 골목마다 소극장이 있는 대전의 대חק로 그 꿈은 1972년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이 문을 열면서 시작됐어요. 대흥동성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은 당시의 환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극사를 주름잡았던 고전과 가요계 거장들의 공연이 열렸던 70, 80년대 이 건물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갤러리, 화랑과 더불어 대전의 문화

발원지의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고요.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소극장 거리의 꿈은 사그러들지 않았는데요.

지방발 연극을 전국으로 통런시키고 있는 아신아트컴퍼니(아신극장)는 근래 가장 활약이 돋보입니다. 아신극장 2개관을 새로 열고, 두 세달에 한 편씩 꾸준히 신선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죠. 연극 커뮤니티로 시작해 20년 넘게 연극인을 양성해낸 ‘커튼콜’이나, 25년 간 전국을 유랑하다 대흥동에 터를 잡은 마당극패 우금치(마당극장 ‘관용’), 대전에 마임이라는 장르의 물꼬를 새롭게 터준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역시 대흥동이 숨겨둔 보물입니다. 오늘 반짝 여행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음 번에는 눈여겨둔 극단의 공연일정에 맞춰 대흥동에 와볼 생각이예요. 미리 짚어두었던 소품샵에서 기념품까지 챙기고 나니 허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거창한 식사 말고 뭐 없을까요?

####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소극장)

📍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일원



### 대전여행 필수코스

“성심당 튀소 잊지마” 대전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의 부탁이라니! 저도 ‘성심당은 처음이라’ 이번 여행에서 빼먹지 않으려고요. 오로지 대전에서만 지점 2군데(롯데백화점, DCC)를 열고 60년 넘게 빵맛을 지켜오고 있는 집이죠. 본점이 대흥동 건너편 은행동에 있었는데요.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됩니다. 바로 옆 성심당 케익부띠끄는 구경만 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빵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친구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대전 사람들은 튀소(튀김소보루) 말고 다른 빵을 고른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인심좋은 시식 덕에 입호강을 하고 나니 고로케부터 보문산메아리, 우유식빵까지 하나같이 ‘빵순이’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클래식한 맛에 더해진 것이 있다고 표현하면 지나칠까요? 그 유명하다는 튀소만 해도 참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원래 곰보빵(소보로빵)과 앙꼬빵이 주력이었던 1980년대 임영진 대표는 ‘앙꼬빵에 소보로를 입혀서 튀겨보자!’라는 생각을 했대지요. 그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대 성공이었죠. 포장식 빙수 문화도 성심당이 앞에서 이끌었다는데요. 가격 또한 착해서 도시여행자의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성심당이 사랑받는 이유는 비단 빵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는 창업주의 맹세를 지켜오고 있다고 해요. 300개의 짬빵 중 100개를 이웃과 나누며 시작한 그 정신이 지금은 매월 4,000만 원 어치의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팔고 남은 빵을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갓 나온 빵을 가장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 성심당

📍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 1588-8069

🕒 월~목, 08:00~22:00  
금~일, 공휴일 08:00~23:00  
연중무휴

### ‘짬’레트로 감성이 추억을 소환하다

소제동은 대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던 부촌이었습니다. 그때의 부활을 꿈꾸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카페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 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와 식당이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SNS상에서 소제동 카페가 ‘핫’해지면서 사진 명소로 급부상 중입니다. 대나무 숲에 들어온 듯 호젓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한 카페는 이미 사진 찍기 명소로 이름을 알렸고요. 일본의 온천을 연상케 하는 식당, 로컬푸드로 이탈리안 요리를 선보이는 곳, 독일식 돈가스와 슈트가 맛있는 집, 관사를 개조한 카페 등등 저마다 독특합니다.



사실 소제동의 터줏대감은 따로 있습니다. 대전이 원도심의 근현대건축물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된 소제창작촌입니다. 관사 42호를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매년 10여 명의 지역 및 해외 작가들이 입주해 문학, 미술,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친다고 해요. 입주 작가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내부도 볼 수 있다는데, 저는 카메라에만 담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뭐래도 이방인 콘셉트니까요.

‘재생공간293’라는 팻말이 걸린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기획전시도 하고 소제창작촌의 입주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는 곳입니다. 낡은 벽과 나무지붕, 1980년대에 발행된 신문 등 예스러운 분위기가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재생공간293 옆으로는 시울2길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골목 갤러리로 일명 ‘시와 그림이 있는 골목’입니다.

니다. 좁은 골목에 예쁜 일러스트와 시가 벽면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밤에는 전시 원도의 불빛이 골목을 밝힌다니 야경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대동천변을 따라 펼쳐진 벽화길을 뒤로 하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소제동 철도관사촌

📍 대전 동구 시울2길 일원

## 2개 교각에 숨겨진 이야기

기차표를 미리 끊어두고 목척교로 향했는데요. 대전역에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었어요. 대전천변을 따라 2개의 교각이 화려한 도심 야경을 완성해주는데요. ‘다리’는 현대화의 시작점이자, 만남의 상징물입니다. 물로 끊어진 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과 사람



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니까요. 목척교와 커플브리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부선의 주요 경유지였던 대전에 일본인 이주자와 상인이 몰려들면서 처음 목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때 대전천을 복개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의 독특한 형상을 갖게 됐다고 해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을 잇는 새로운 동서 발전축으로 당시의 영화(榮華)를 간직하고 있죠.

목척교에서 500m쯤 떨어진 커플브리지는 2020년 3월에 새로 생긴 다리인데요. 이름부터 핑크빛 기운이 감돌죠? 목척교 주변으로 도심의 활기가 더해지면서 그 옛날 흥명상가와 천변의 포장마차 거리는 ‘만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친구, 연인에게는 설레는 기다림의 장소였고, 전국 각지의 상인들은 이 근방에서

뜨끈한 칼국수로 허기를 달래곤 했대지요. 그때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커플브리는 로맨틱한 불빛과 독특한 형상으로 야경맛집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아! 이곳에서 놓치면 아까운 스팟이 있는데요. 대형 달 풍선에서 찍는 인증샷과, 매일 저녁 8시 분수 위에 상영되는 프로젝트 맵핑 작품도 도시여행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목척교 커플브리지

📍 대전 동구 중동



TV와 핸드폰만 있으면 몇 날 며칠이라도 집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집순이'지만 그것이 지의가 아닌 타의가 되니 전혀 다른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외출을 삼간 지 어느덧 8개월 여. 더군다나 올해 가을 하늘은 애국가 가사처럼 공황하고도, 높고 구름도 없는지, 아파트 창밖으로 넘겨다보이는 가을 풍경이 너무 청명하고 아름다워 야속할 지경이에요. 근처 여행지라도 돌아보며 2020년 가을을 추억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대로 이 아름다운 가을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니까요.





유성  
도시산책  
권역

-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둘레길
-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 성심당 DCC점

### ● 여행준비

갑작스럽게 시작된 여행인지라 목적지는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대전에 가볼만한 곳들을 엮어서 돌아볼 생각입니다. 짧은 이동시간에도 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다소 갑작스러운 여행임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만족스럽거든요. 가을 내음 맡으며 소록소록 걸을 수 있고, 땀 뚫린 공간에서 마스크 너머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좋겠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맛있는 음식과 커피

한잔 하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간편한 차림과 운동화, 그리고 물 한 병 챙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둘레길이 첫 번째 행선지입니다.

### 지루할 틈 없는 10.04킬로미터 산책길

현충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현충원이니만큼, 시끌벅적하게 움직임은 삼가야 겠죠. 운동화 끈을 단단히 정비하고, 둘레길 지도 앞에서 가야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총 10킬로미터에 달하는 둘레길 코스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쪽빛(남색), 보라 등 색깔 별로 그 특색을 구분해 놓아, 가는 길마다 소소하게 달라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네요. 사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선 여행 같은 여행이라서인지

바람결에 굴러가는 단풍잎 하나에도 온갖 감탄사가 튀어나올 판이지만요.

커다란 돌에 보훈둘레길이라고 이정표가 쓰여진 곳이 둘레길의 시작입니다. 코스 입구에는 해충기피분사가 준비돼 있어요. 여행자를 위한 작은 배려에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빨강길'이라고 표시된 곳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대전 걷고 싶은 길 12선'에 속한 이 둘레길은 가을녘 정취를 초입부터 물씬 전합니다. 폭신폭신타는 낙엽이 쌓여 걷는 길이 피곤치 않네요. 중간중간 이정표가 잘 돼있어 길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요. 동행은 없지만 귀여운 청설모도 보이고, 산비둘기도 스쳐갑니다.

뭉근한 낙엽 내음에 취해 걸어가다 보면 호국철도기념관에 다다릅니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가 잔디밭 위에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수송 작전에





참여해 순직한 철도인을 기리는 추모 조형물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념관은 휴원한 상태인지라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그곳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빨강길 코스에는 작은 연못과 그곳을 에두르고 있는 역새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철을 마무리한 연꽃 무리도 보였는데요. 연꽃이 피었을 때 왔어도 참 좋았겠다, 싶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역새와 마주하고 감탄사를 터져 나온 지 수분 되지도 않아, 철 지난 연꽃을 아쉬워 하니 말입니다.

주황길 초입에는 명언들이 적힌 판들이 세워져있습니다. 길옆으로는 무성한 대나무숲이 관객을 호위하고 서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대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주황길에 이어 노랑길이 시작됐어요. 이 길은 현충원을 옆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현충일이 되어서나 생각해보던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곳에서

는 걷는 내내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훈둘레길’인가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경탄스럽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마음도 그 이상의 경외감을 낳게 하네요.

초록길은 제법 트레킹하는 맛이 납니다. 나무다리도 건너고 오르락내리락 허벅지에 제법 힘이 들어가요. 오랜만에 걸으니 다리가 빠근해지는 느낌이, 운동되는 듯 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초록길에는 보훈전망대가 있는데요. 현충원 묘역이 내려다보입니다. 잠깐 묵념을 하고 다시 코스를 따라 이동해볼까요.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르막길이라도 해도 그다지 힘들지 않는데요. 어르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와도 이야기 나눠가며 숨차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가는 길에 만난 어르신은 혼자 걷는 이가 안쓰러웠는지 준비해온 간식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유성에 사신다는 그



분은 코로나로 동네 산책이 어려워 이곳에 일주일에 두 번은 오신다고 하셨어요.

파랑길과 쪽빛길, 보라길은 시야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파랑길에는 현충원이 잘 내려다보이는 또 하나의 전망대가 있어요. 휘적휘적 걸으며 코스를 마무리해봅니다. 길의 마지막에는 작은 연못과 다리도 있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 징검다리까지 건너면 10키로미터 둘레길 여정이 끝이 납니다. 쉬엄쉬엄 걸어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땀을 식혀가며, 마지막 숲 내음 맡아가며 여행의 첫 일정을 마무리 지어봅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둘레길

📍 유성구 갑동 산23-1

☎ 042-718-7114

🕒 하절기(3~10월): 06:00~18:00

동절기(11월~2월): 07:00~18:00

## 동심을 깨워줄, ‘꿈돌이’를 찾아서

점심식사를 거하게 마쳤으니, 또 다시 다음 여행지로 향해야겠죠. 오랜만에 나선 길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까요. 현충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광장을 다음 행선지로 정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인만큼 뽕 뿜린 광장이 아무래도 부담 없고 마음이 편해서요. 평일이라 여유롭게 차를 주차하고 광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교통안전체험장이네요. 실내 체험장은 교육시간에만 열리는지 닫혀 있었고, 야외체험장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여행객이라면 둘러서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질서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건너편에는 대전엑스포기념관과 기념품 박물관, 대전통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시기적으로 부담스러워 근처 조형물들을 살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베를린장벽 이미지를 담은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현충원을 둘러온 탓인지, 이 조형물의 의미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은 이 작은 작품 앞에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서성대고서야 겨우 발길이 떨어집니다.

기념관을 지나 엑스포다리가 보이는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대전’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인 엑스포다리와의 참으로 오랜만의 조우네요. 어릴적 친구를 만난 것 마냥 반가움이 밀려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는 참으로 대단했죠. 지금이야 ‘엑스포’라는 말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행사에 쓰이지만, 그때는 달랐으니까요. 93일간 108개국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던 대전엑스포는 전쟁을 겪은 약소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으로 그 위상



을 인정받게 된 자리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를 읊어보자면,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엑스포 가봤냐'로 어깨에 힘을 주던 시대였죠. 여기에 노란 '꿈돌이 인형'까지 하나 들고 학교에 가주면 그 날의 인기스타가 됐고요. 유년기를 타 지역에서 보낸 저는 직접 엑스포를 찾지 못한 한이 아직도 있어요. 관광 버스를 타고 이웃들과 엑스포를 다녀오신 부모님이 꿈돌이 저금통은 하나 안겨주셔서 서러움을 약간 달랜 정도인데요. 직접 보고 온 친구들이 역사적 현장을 묘사해 달 때, 입만 껍 벌리고 있었던 유년기의 한을 지금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부모님의 기념사진 속에서 번쩍대는 위용을 자랑하던 한빛탑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옆에는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가 유년의 기억을 들춰내고요. 지금 봐도 꿈돌이는 여전히 사랑스럽네요.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새삼 놀랍습니다. 중년들의 '라떼 감성'을 자극하

는 꿈돌이는 올해 9월부터 카카오TV 예능프로그램에도 등장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꿈돌이가 어른이 된 1980~1990년대생들의 어린시절 추억을 소환하며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며 “꿈돌이, 한빛탑 등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굿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굿즈’ 출시라니, 꿈돌이를 사랑했던 마음속 그 때 그 아이가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꿈돌이와 한빛탑을 곁에 두고 한참을 걷고 또 걸으며,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해봅니다. 아파트 안에서 작은 보폭으로 종종 거리며 지내다 시원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도 오랜만인데요. 걷다가 지치면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 그렇게 지치지 않게 광장 주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이 갈만한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익숙함이 편안하게 느껴져 한참 뒤에나 자리를 떴습니다.

####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 유성구 대덕대로 480

☎ 042-250-1111

🕒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대전에 왔으면, '튀소'는 먹어야지

한빛탑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대전 명물 성심당이 있습니다. 본점은 대전역 근처지만, 2017년에 유성구 DCC 1층에 제법 큰 규모로 체인점을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전국에서 체인을 열어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하지만, '대전에서만 판매'하겠다는 향토기업으로서의 경영 철학이 담긴 행보입니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찜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이제 '대전'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DCC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지원과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해외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데요. 전국구를 넘어, 해외에도 대전 명물 빵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1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빵 냄새가 하루의 피곤을 가시게 합니다. 튀김 소보로 한 개와 보문산 메아리 하나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킨 뒤 자리를 잡고 앉아봅니다. 성심당의 '보문산 메아리', '한밭의 노래', '대전부르스 떡' 등 지역색을 담은 빵 이름들도 눈길을 끄니다. 케이크 부띠끄도 따로 있어 달콤한 디저트도 가득하고요. 동행이 있었으면 넉넉히 시켜 맛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에요.

버터 향 가득한 빵 한 입 베어물고, 커피 한 모금 마시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맛있는 음식이죠. 제아무리 좋은 일정이랴도 형편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 여행의 의미는 퇴색되거든요. 그런 의미에

서 이번 여행은 갑작스러웠지만, 꽤 훌륭한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한껏 여유를 부리며 마지막 식사를 즐기다 보니, 사위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제법 알찼던 대전 당일치기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집안에서 종종 거리며 하루를 보냈을 가족들이 생각나 성심당 케이크부띠끄에서 '부띠끄 묶음세트' 테이크아웃을 요청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달콤해지는 케이크를 맛보며,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만족스러웠던 오늘을 추억하며, 조만간 꽤나 갑작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대전으로 향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조용하고 잔잔했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했던 하루였습니다.

#### 성심당 DCC점

📍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 1588-8069

🕒 08:00~10:00(2층 카페는 09:00부터)



DAEJEON  
STORYTELLING

VOL.  
3

# 가장 예쁜 날 대전이주





익숙해진다는 건 낯설거나 설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편해지거나 무뎌짐해지는 것. 그리고 어쩌면 서로를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가 연인으로 함께한 지 아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더하고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낯익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장소에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부딪혀있고 있는 곳으로, 시대를 초월한 감정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같이, 떠나볼까?"



선화동,  
테미 권역

- 선화단길
- 삼성동 인쇄거리
- 테미오래
- 대전프랑스문화원 앙트르뵐
- 보문산전망대

## 여행준비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데이트 코스 짜기에 열중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대전, 둘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요즘 핫하다는 '선화단길'. 머리를 맞대고 SNS로 폭풍 검색을 합니다. #선화단길 #선화단길맛집 #대전카페 #대전여행 #대전야경... 감성 가득한 사진들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요즘 스타일의 감각적이고 플레이팅이 예쁜 식당 하나를 점찍어 둡니다. 유니크한 인테리어의 소품샵과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 예쁜 카페, 아기자기한 공방,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 여행의 시작은 기차역에서

삐삐 삐삐빅 반쯤 감긴 눈으로 더듬더듬 알람을 끄고, 멍그적거립니다. '아, 5분만 더 잘까?'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뿔싸! 어느덧 시간은 20분이나 흘러 있네요. 부랴부랴 욕실로 달려가 씻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곧장 대전으로 향하는 KTX에 올라탔습니다. 오전 9시 45분, "KTX 121번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파노라마처럼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무엇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 여행의 맛이 달라지죠. 기차여행은 타는 순간부터 그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도착까지는 딱 1시간. 평소에 같이 듣고 싶었던 음악을 재생합니다.

## 켜켜이 쌓인 시간 위로 감성이 '덕지덕지'

대전역에 도착한 뒤, 예약해둔 렌트카를 픽업합니다. 돌아볼 곳들이 한데 모여있긴 하지만, 좀 더 느긋하게 데이트를 즐기기로 한 거죠. 대전역에서 목적교를 지나 은행동을 가로지릅니다.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미리 점찍어 둔 선화동의 한 파스타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픈 시간 5분 전인데도, 이미 3팀이 대기하고 있네요. 안내를 받고 테이블에 착석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 이곳은, 매일 아침 직접 반죽한 수제 생면 파스타를 파는 곳입니다. 포스터와 스티커, 명함마저 힙합니다. 주문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버섯 향 고소하게 풍기는 쫄면쫄면한 뇨끼와 감칠맛 폭발하는 라구 파스타,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알배추 샐러드까지! 여기

에 신선하고 상큼한 토마토 피클까지 곁들입니다. 둘 다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엄지척! 오늘 스타트가 좋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선화단길을 걸어볼까요? 선화단길은 중구청역 3, 4번 출구 사이의 골목을 일컫는데요. 이곳은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법원과 검찰청, 충남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방송국까지 있던 대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무렵 둔산지구 개발과 함께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급주택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많이 낡아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가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낡은 주택에 젊은 감각을 더한 카페, 손때 묻은 소박한 식당, 식물이 가득한 서점, 아기자기한 소품샵, 푹푹득득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작은 공방까지. 옛것과 요즘 것들이 오순도순 질서 있게 모여있다고나 할까요.



걸다 보니 이 거리에서 가장 알록달록한 무지개 계단과 마주칩니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 듯, 오래된 건물들과 낮은 담벼락, 군데 군데 세워진 전신주가 옛 정취와 낭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옛날 동네임을 보여주는 폭이 좁은 골목길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지개 계단 건너편, 작은 공방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그릇 하나 접시 하나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느려서 미처 가지 못한 듯 한껏 여유롭습니다. 마당을 품은 한옥 카페에는 시절 모르고 피어난 장미꽃들이 하늘하늘 널려있고, 정감 가는 간판을 매단 ‘방앗간’ 앞에는 귀여운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선화단길. 이곳에

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을 간질입니다. 살랑 부는 바람까지 기분 좋은 ‘그런 날’입니다.

덩치 큰 건물들을 기점 삼아 다시 걷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골뚝에 ‘오성장’이란 세글자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시곗바늘을 반세기 정도 거꾸로 돌린 듯한 풍경이네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목욕탕은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의 피로를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오성장 사거리를 지나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재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화동.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길을 걷고 또 걸어봅니다.

#### 선화단길

📍 중구 중앙로 기 중앙로역 3, 4번출구 골목



#### 찬란했던 그때 그 시절의 거리

삼성동 인쇄거리의 선화단길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한발식당부터 한발중학교까지 이어진 길을 중심으로 대전천의 동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잉크 냄새가 날 것 같은 거리는 평일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뭅니다. 우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안을 엿봅니다. 바깥의 한가로움과 달리 창 너머에는 인쇄기들이 열심히 인쇄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작업자들의 손놀림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전시 중구 정동, 중동, 삼성동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인쇄거리는 서울, 대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인쇄거리로 꼽힙니다. 물론 인쇄 물량으로 따지자면 서울이나 상업인쇄가 발달된 대구에 비해 떨어지지만, 관공서와 부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며 나름의 성격을 가진 인쇄거리로 성장해왔습니다. 작지만 분화되고 유기적인 형태로 인쇄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도 4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모여있다니 그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보이는 간판마다 인쇄사, 그래픽, 기획, 디자인 등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몇십 년 경력의 장인들입니다. 인쇄와 출판 일이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행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북적북적했을 그 시절의 인쇄 거리를 상상해봅니다.

삼성동도 선화동 못지않게 좁은 골목들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마치 혈관처럼요. 골목을 들여다 보면, 이곳이 식당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들이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쇄거리엔 아는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찐 맛집이 많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칼국수 집을 추천받기도 했고요. 다음엔 이곳에서 맛있는 한 끼를 먹어봐야겠습니다.

#### 삼성동 인쇄거리

📍 동구 선화로 일대

## 비밀의 정원에 즐거움이 꽃피다

세 번째 방문지는 옛 충남 도지사 관사촌인 '데미오래'입니다. 이곳은 방문 전부터 참 흥미로웠던 곳입니다.

80여 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의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대전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관사촌이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충남도지사공관의 '시민의 집'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한국과 서양식 건축물의 특성을 모두 갖는 탓에 낯설면서도 친근한 풍채를 뽐니다. 앞마

당엔 '비밀의 정원'이란 별칭처럼 작은 호수와 나무가 잘 정돈되어 있고, 수국 꽃가지 위로 팔랑팔랑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입구에 들어서자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시민의 집은 일제강점기 때 유행했던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서양식, 내부로 들어오면 일본식, 한국 사람이 고용되어 일했기 때문에 온돌방과 같은 한국식 건축양식도 절충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엔 스텐드글라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직 창과 원형 창은 아르데코풍 양식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양식입니다.



2층은 일본 전통 양식의 접객 공간입니다. “바닥 한 번 만져보세요. 유난히 길고 습한 여름을 견디기 위해 시원한 다다미가 깔려 있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수납장 대신 이렇게 불박이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냈고요.” 설명을 듣고 둘러보니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도 집중해서 듣게 되더군요.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문화관광해설사분과 함께 기념사진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이렇게 잠시 만난 인연도 특별해집니다.

시민의 집에 외에도 9개의 관사가 남아있습니다. 1호 관사는 ‘역사의 집’, 2호는 ‘재미있는 집’, 5호는 ‘빛과 만남의 집’으로 불립니다. 6호는 ‘상상의 집’입니다. 특별 기획전이나 작은 만화도서관, 시민창작공방 등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역사의 집’으로 시인 박용래 님의 대전문학기록 아카이브 특별전에 가보기로 합니다. 평소 시집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시가 무척 마음에 드나 봅니다. 온 마음이 감수성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던 그의 시들이 곳곳에 피어있습니다. 창문마다 새겨진 그의 시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살아생전 그가 쓰던 서재의 느

낌을 살린 공간도 특별합니다. 쌓인 책들 사이에서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인의 사진 속 모습은 마치 살아 계신 듯 그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방 테이블에 잉크와 잉크펜이 놓여 있고, 창문에는 방문자들이 남겨놓은 수십 개의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여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숨은 꽃처럼 살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재미있는 집’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지 않는 꽃’ 전시와 탁영호 만화전이 진행되고 있고, ‘빛과 만남의 집’에서는 여행정보 프로그램으로 ‘먼 나라 낯선 이웃 네 팔 포카라’ 전시가 한창입니다. 상상의 집에서는 ‘전쟁 기억,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이란 주제로 평소 예에 보기 힘



든 전쟁 당시의 대전 전투와 관련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권인 듯합니다.

#### 테미오레

- 📍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
- ☎ 042-335-5701
- 🕒 하절기(3~10월): 오전 10:00~17:00(입장마감 16:30)  
동절기(11월~2월): 오전 10:00~16:00(입장마감 15:3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신비하고 기이한 프랑스 마을

대전천이 흐르는 대전 구도심의 남쪽 끝, 석교동에 위치한 작은 프랑스 ‘앙트르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쪽 외벽에 큼직한 글씨로 ‘대전프랑스문화원’이라고 적

혀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과거 고무공장으로 쓰였던 창고를 리모델링한 탓에 걸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웬걸! 유럽풍의 빈티지한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 수많은 책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색색의 조명들이 우아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의자며 테이블, 바닥에 깔린 러그들까지. 한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이 공생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는 프랑스의 특징이 묻어있는 걸까요? 오후 4시가 되자, 입구 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넓은 창을 통해 햇살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햇살의 꼬리는 사라지고, 음영의 콘트라스트가 더욱 짙어집니다.



앙트르뽀 1층은 마리아주 프레르(Mariage Freres, 프랑스에 홍차를 처음 소개한 마리아주 프레르에 의해 탄생한 홍차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요. 종일 바깥바람을 맞은 탓에 따뜻한 홍차와 커피를 주문합니다. 해바라기와 백합이 그려진 그림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 아래 홍차의 향기가 진하게 퍼집니다. 이런 오붓한 분위기에서 데이트는 실로 오랜만인 것 같네요. 차분해진 숨소리가 움트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에 달큰한 향기가 머뭙니다.

이야기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주문하는 곳 옆에는 ‘미디어 도서관’ 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앙트르뽀의 문화공연

소식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 방문을 위해서 살포시 적어둡니다.

제일 안쪽에는 작은 단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음악 축제와 예술 전시, 명사 초청 강연 등을 여는 앙트르뽀의 무대인 듯한데요. 그 옆으로는 집 속의 집처럼, 작은 집 하나가 자리하고, 그 지붕 위로 검은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립니다. 물론 이 또한 소품이지요. 앙트르뽀 한가운데에는 다양한 크기의 에펠탑과 무릎을 껴안고 단장에 빠진 듯한 소녀상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 설치된 TV에서는 프랑스 영화가 심 없이 흘러나옵니다.

2층은 프랑스 미디어·도서 공간입니다. 서울 프랑스 대사관이 보유하던 도서관을 통째로 옮겨 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이 프랑스 원어 서적들로 보이고, 한글로 되어있는 서적들 또한 프랑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DVD와 CD도 꽤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전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여를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셰린의 탄생비화?” “파브르 곤충기도 있네!” “이 책 재밌었는데, 읽어 봤어?” 카페 데이트에서 서점 데이트로 공간 이동! 읽었던 책들은 다시 보니 새삼 반갑고 신기합니다. 어린 친구들을 위한 서적과 의자들도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입니다. 마치 프랑스 친구의 커다란 다락방에 놀러 온 것 같다고나 할까요.

#### 대전프랑스문화원 앙트르뽀

- 📍 중구 대전천서로 201
- ☎ 042-272-5254
- 🕒 휴무 명절



##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도시를 조금은 사랑하게 될지도

이제 밤이 주는 특별한 감성에 빠져볼까요? 대전 중구 중심에 위치한 보문산으로 달려갑니다. 식당산이 대전 전경을 넓게 멀리서 볼 수 있다면, 보문산은 좀 더 가까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앙트르뽀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보문산을 택했습니다. 보문산에 오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중 대전 원도심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보문산전망대로 향합니다.

포장도로가 깔린 길을 힘차게 올라갑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옆 산책로를 따라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보문산숲치유센터 주차장에 다다랐습니다. 계단을 타고 대전목재문화체험장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길에는 가로등도 켜져 있고요. 앞새며 꽃이며 알록달록한 무늬의 레이저 불빛이 거리를 수놓습니다.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10분 정도 오르다 보니, 드디어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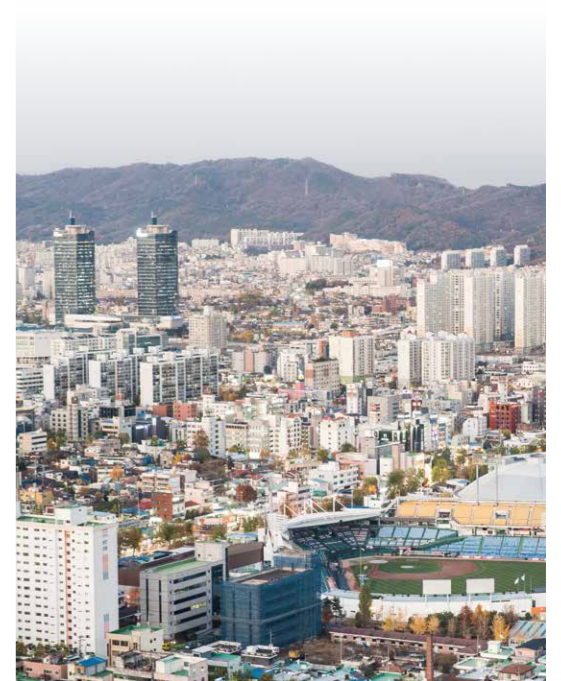
반구 형태의 전망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1층은 벤치들이 쭉 놓인 휴식 공간이고요. 2층은 망원경이 있고 뽕 뚫려있습니다.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2층으로 향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었던 중년의 부부와 데이트하는 커플들, 동네 뒷산 산책하듯 올라온 사람들도 몇몇 보이네요.

도시는 밤낮없이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길 바쁜 자동차의 경적, 왁자지껄 행인의 목소리, 귓가를 때리는 거리 음악 소리 등... 그런데 밤의 전망대는 적막하고 고

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돌아보았던 곳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함께 걸었던 거리, 지금도 함께 하는 이 순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모두 저 아래서 반짝 반짝 빛을 내고 있을 테죠.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 하루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파다닥' 불꽃을 내며 마음에 새겨집니다.

보문산전망대

📍 중구 대사동



DAEJEON  
STORYTELLING

VOL.  
4

# 삼대가 나란히 대전이주



제법 서늘해진 날씨에 목욕두었던 두통한 옷들을 꺼내봅니다.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대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날씨 대비를 잘못하면 자칫 감기에 걸릴 지도 모를 일 아니까요.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제법 커서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옷 체계를 합니다. 동네 산책만 가볍게 다니시던 부모님이 더 들떠 보이시네요. 여행이 주는 즐거움도 그렇지만, 고물고물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하는 오랜만의 여행인지라 기쁜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제가 코코아도 챙겼어요!’ 자기 간식거리를 챙겨 놓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같이 챙기는 7살 막내아이의 목소리도 한껏 높아져있네요.





유성온천  
휴식 권역

-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굴
- 유림공원
- 유성온천공원 족욕체험장
- 유성구 죽동 카페거리
- 유성온천역 인근 스카이라운지

### 여행준비

청주에서 대전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와 부모님, 두 아이들까지 총인원 6명이 함께 하는 여정이기에 이동거리가 부담스럽지 않아 만족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세대를 만족시킬 만한 여행지들도 고심하며 일정을 준비했는데, 가족들의 마음에 들지 궁금하네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걱정 반, 설렘 반 신고 차에 오릅니다. 이미 차 안에서는 아이들만의 여행이 시작됐네요. 준비해온 과자와 과일을 꺼내서 나누며 왁자지껄, 들썩들썩 요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도 여

행다운 여행을 해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아이들은 목적이 어디인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그저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업' 돼 있습니다.

### 가슴 속 시원해지는, 힐링 숲길

첫 번째로 닿은 곳은 대전 유성구 계룡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수통굴. '맛집' 많기로 인근에 소문난 곳이라, 지인과 식사를 하려고 찾은 적은 있지만 여행으로는 처음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수통굴 입구는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수통굴은 '골짜기가 깊고 물이 통한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계룡산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 표지석 앞에서 가족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남겨봅니다. 힘이 펄펄 남아도는 아이들은 온갖 포즈를 취해가며 자기들만의 여행 추억을 만드는 중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평일임에도 제법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 는 시기여서 인가 봅니다. 등산객들은 등산화까지 갖추고 길을 나서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산책을 즐기러 온 행색입니다. '등산은 싫다'고 단호히 자기 의사를 밝힌 꼬맹이 덕분에 산책로만 걷기로 출발하기 전부터 약속을 한 터. 아쉽긴 하지만 왕복 1시간 정도로 여정을 계획하고 걸음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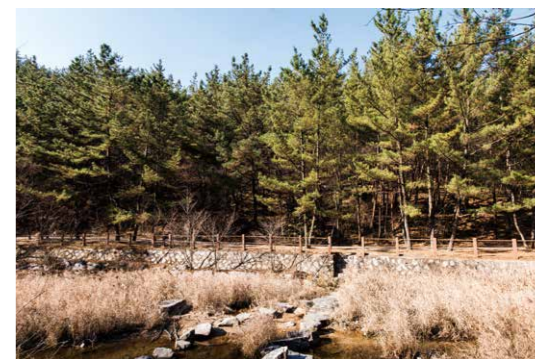
계곡을 중심으로 나무 데크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습니다. 잔잔하게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산책길에 나서 봅니다. 길을 따라 양옆으로 곱게 물든 단풍들이 우리 가는 길을 함께 해주네요. "여기만 와도 공기가 다르네." 부모님도 숲길 산책에 마음에 드신 듯 연신 감탄사를 터트리십니다. 깊게 호흡을 하며 걸으니 폐부까지 맑은 공기가 닿

는 느낌입니다. 저 앞까지 뛰어가 우리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지쳤는지, 우리랑 걸음을 맞추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네요. 걱정과는 달리 7살, 10살 아이들이 제법 잘 걸어줘서 다행입니다. 여차하면 막내는 안고 걸어야 하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안도감이 듭니다.

계곡, 골짜기마다 굵이굵이 녹아든 단풍 빛을 실컷 감상하고 '이제 돌아가자'고 채근하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길을 되돌아갑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시간도 보내고, 바닥에 떨어진 단풍잎도 몇 개 주워 이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랠니다. 왕복 1시간 여, 길다면 길었던 산책길이 제법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며 칭얼거리네요. 이럴 때 답은 하나죠. '맛있는 거 먹자'며 달래는 것뿐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굴

📍 유성구 덕명동



## 국화향기 머금은, 공원을 거닐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으니, 새로운 여정지로 향해 아겠쥬. 대전 유성구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유림공원을 찾아 가을 정취를 만끽해볼 생각입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정보에 마음이 동해서 일정에 넣은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유림공원 내에 국화축제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림공원, 온천공원 등 30개소에서 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축제의 형식과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국화 내음만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가을 향내 듬뿍 남은 국화 향기가 걷는 걸음마다 코에 닿네요. 공원 한 켠에는 요즘 SNS에서 유명한 핑크물리 군락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놓칠 리 없는 아이들이 먼저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네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도 손주들의 제안에는 흔쾌히 ‘오케이’ 하십니다. 준비해간 삼각대를 세우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서서 사진을 남겨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끼리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사진은 두고두고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니까요.

유림공원 내에는 국화꽃으로 만든 전망대와 조형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화로 한복을 꾸며 입은 남녀 조형물은 얼굴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 ‘우습고도 슬픈’, 요즘 말로 ‘웃픈’ 감정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 조형물을 보며 웃어대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어른들 마음이지요. “언제쯤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 갈 수 있겠냐, 아이들이 젤 불쌍하”라며 말씀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마음 한 구석이 찢해집니다.

쉬다 걷다를 반복하며 한반도 모양의 인공호수인 ‘반도지’로 향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코스모스, 국화, 갖가지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가을 볼거리를 만들어내네요. “오와, 거북이 있어요!” 큰 아이가 소리쳐서 보니, 정말 아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거북이가 연못 속에서 부지런히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잉어도 보이네요. 꽃놀이에 시들해져 있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기운을 내 떠들



어대기 시작합니다. 왜가리도 자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왜가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만난 귀여운 생명체들에 정신이 팔려 한동안 뜰 생각을 하지 않네요.

### 유림공원

📍 유성구 봉명동 2-1

## 피로를 날리는, 특별한 휴식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 걷기 시작했더니 제법 발바닥에 뜨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수고한 발에 호사를 누리게 해 줄 시간. 유림공원에서 차로 5분 여 거리에 유성온천공원 족욕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온천을 좋아하시지만 요즘에는 가시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족욕이라고 하자, 큰 아이가 물놀이라도 가는 줄 알았는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는 물장구 치고 노는 데가 아니라, 점잖게 앉아 있어야 하는 곳이야.”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노천에 자리한 족욕체험장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띄어 앉는 것이 기본 수칙. 마스크도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유성온천에서 사용되는 약알칼리 40도씨 온천수에 발을 담그자 “으어~”하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온천수에 발을 넣자마자 뜨겁다며 발을 빼내버립니다. “천천히 발 넣고 있어봐. 곧 익숙해질 거여.”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아이들도 천천히 발을 넣어 보지만 참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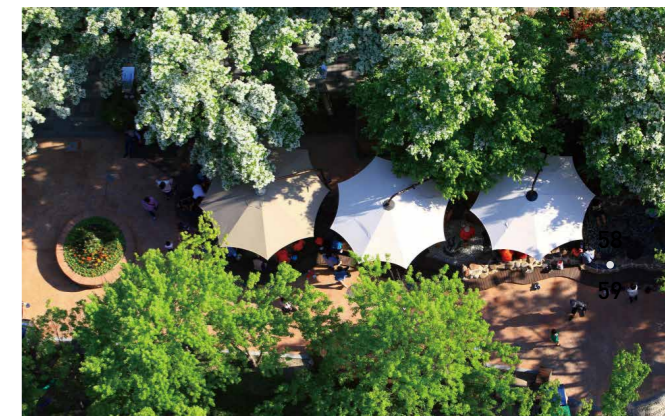
발을 담근 지 5분쯤 지나자 몸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는 땀을 선선한 가을바람이 곧 식혀줍니다. 온몸을 온천물에 푹 담그고 즐기는 온천욕에 비해 못할 거라 생각했던 족욕의 즐거움이 꽤나 크네요. 발을 담그고, 흐르는 구름 쳐다보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15분쯤 여유를 즐기며 족욕을 한 뒤 자리를 뜹니다. 나서는 길에 대전시티투어 승강장이 보이는 걸 보니, 차 없이 시티 투어 코스로 들러도 좋을 듯합니다.

### 유성온천공원 족욕체험장

📍 유성구 봉명동 574 일대

☎ 042-611-2445

🕒 07:00~22:00





## 커피 향 가득한 거리를 거닐다

차(茶)를 좋아하는 아내가 대전에 가게 되면 꼭 들르고 싶다고 버려던 곳. 유성경찰서 뒤편, 죽동 카페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유성온천 치척인데,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아내의 제안에 못이긴 척 따라나섰는데, 막상 와 보니 사실 제가 더 설렙니다. 제가 대전을 찾았던 몇 년 전만해도 대전 ‘핫플’은 충남대 앞 궁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궁동에 이어 죽동까지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가 되어있네요. 대학로에서 시작된 감각적인 카페들이 인근 주택가까지 확대돼, 대전을 대표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SNS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들르지 않을 수 없겠더군요.

비슷한 듯, 각기 다른 개성으로 무장한 카페들이 골목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네요. 아내와 단둘이 찾았더라면



골목을 누비며 이곳저곳 들여다보고 싶지만, 오늘은 참 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어디로 갈 거냐’며 성화네요. 수십 여 곳의 카페 가운데 우리 가족이 선택한 곳은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이국적인 풍경 속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벽면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리 잡기가 무섭게 어머니님과 아내가 그곳으로 가,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서성거립니다. 20여 년 넘게 그라인더, 티포트, 그릇 등 앤틱 소품을 모아온 수집가 사장님의 컬렉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내는 아쉬워하고, 전 안도했습니다.

홍차가 유명한 곳이라 어른들은 홍차를 주문하고, 아이들은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수제 플레인요거트를 먹기로 했습니다. ‘홍차는 다 같은 홍차’라고 생각했던 저는,

20여 가지의 홍차 메뉴가 펼쳐지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다행히 아내가 원하는 향과 맛에 따라 추천을 해주어서 ‘사과향이 나는 영국산 홍차’를 선택했습니다. 홍차를 주문하면, 직접 고른 티포트에 차를 담아주십니다. 차를 마시며 시선이 머무르는 곳곳을 천천히 감상합니다.

유성구 죽동 카페거리

📍 유성구 죽동로 일대

## 야경과 함께 하는 낭만적 디너 타임

볼거리 많은 죽동 카페거리를 떠나기 아쉽지만, 배고프면 화를 내는 ‘꼬마 상잔’들이 있기에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서 어둑어둑해져 가는 시간인지라, 지금쯤 가면 야경을 보기에 딱 좋을 것 같네요.

야경과 함께 분위기 있게 식사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사실 제 취향대로라면 유성온천 관광지 주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포 맛집에 들를 테지만, 이번 여행은 저만의 여행이 아니니 뒤로 미뤄둡니다. 차치해둔 일정들이 많아 조만간 또 대전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텔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예약해둔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었는지 어머니가 옆구리를 찌르시며 “백반집이나 가지. 이런 비싼 데를 왜 왔냐”며 타박하시지만 내일이 되면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 ‘아들 덕에 좋은 데 다녀왔다’고 자랑하실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안심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가 안 좋은 어른들도 부드러운 안심인지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요. 뭐, 돌도 씹어 삼킬 아이들의 식성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도 스테이크는 종종 해먹지만, 호텔 셰프의 솜씨는 따를 수 없습니다. 시즈닝 잘 된, 육향 가득한 스테이크 맛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갑천과 유성온천 일대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즐기는 식사는 여행의 마무리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직원분께 부탁드려 마지막 여행 인증사진도 남겨야지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들으며, 그렇게 3대가 함께 한 대전 나들이를 마무리합니다.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잘 따라준 가족들이 고맙네요. 사는 곳과 가깝다는 이유로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여행지로서의 대전, 집에 가면 대전 지도 펼치고 구석구석 다시 한 번 갈만한 곳을 탐색해 봐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놀다갑시다.

유성온천역 인근 스카이라운지



3대가 함께 길을 나서는 게 참 쉽지 않죠. 세중에 서울에 대전에 별별이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한 번 얼굴보기도 어렵지만, '어딜 가야 하나' 생각하면 더 어려운 일인데요. 이곳이라면 낯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들 등 3대가 함께 와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개장 20년을 훌쩍 넘긴 뿌리공원입니다.



뿌리공원  
호문화  
권역

- 무수천하마을
- 무수천하마을(유회당 종가)
- 무수천하마을(유회당)
- 무수천하마을(여경암)
- 무수천하마을(전통 장 담그기 체험)
- 한국호문화진흥원
- 뿌리공원
- 뿌리공원(한국족보박물관)
- 성씨 조형물 언덕
- 은하수터널

## 여행준비

휴가를 맞아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편히 쉬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불속을 뒹굴다 보니 할머니 얼굴이 무심결에 떠오릅니다. 생각이 났으면 바로 실행해야죠. “우리 할머니 모시고 뿌리공원이랑 근처 무수천하마을에 가요”. 예상대로 저의 제안은 단박에 먹혀들었죠. 시작이 순조로우니 나머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고속도로(안영 IC)를 빠져나가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우리 딸 칭찬해”라는 말도 덤으로 들었죠. 사전예약도 미리미리 해두었는데요. 무수천하마을 체험을 곁들이면 더 알찬 3대 여행이 되겠다라고요. 감동 포

인트도 꼭 집어 두었는데요. 뿌리공원에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흔들다리를 건널 것. 무수천하마을에서는 엄마와 장담그기 인증샷을 남길 것. 이제 남은 건 맛집 리스트 정도이겠죠?

## 세종에서 무수천하마을까지

세종에서 부모님 자가용을 타고 대전에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러 출발합니다. 오늘 낮 코스는 무수천하마을인데요. 뿌리공원은 해질녘에 가보려고해요. 웨서핑으로 본 뿌리공원 경관조명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경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고 공원 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볼 생각인데요. 제가 골라놓은 한우, 냉면, 두부요리 중 할머니께서 드시고 싶은 게 분명 있겠죠? 뿌리공원에는 대전의 3대 하천 중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서 운 좋으면 강물과 야경을 내려다 보며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하늘 아래 근심 없는 마을, 무수천하마을

초입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목장승이 우리 가족을 반깁니다. 무수천하마을입니다. 목장승은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자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늘 아래 근심 없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무수천하마을은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전통과 호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부터 대도시 근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고 정다운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드넓은 논과 밭을 지나 조금 더 달리다 보니 다목적회관 앞에 마을 안내판이 보이네요. 이쯤에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마을 일대를 천천히 둘러보려 합니다.

## 무수천하마을

- 중구 운남로85번길 5
- 042-285-5557

## 300년 숨결 품은 안동 권씨 마을

대전 중구 무수동이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알려진 사실로는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유회당 권이진 선생이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권이진 선생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외손자로 효심이 매우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안동 권씨 후손 28가구가 이곳에 거주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0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한 만큼





마을 곳곳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에서 마을 입구 쪽으로 조금 걷다 보니 보문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유회당 종가가 보이네요. 유회당 종가는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788년 후손들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당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 있는 듯 해요. 양반가의 가옥이지만 소박한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자연을 벗 삼아 청렴하게 살고자 했던 선비 정신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회당 종가 앞에는 고택의 운치를 더해주는 은행나무와 연못, 초가지붕을 엮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자의 이름은 광영정으로 조선 영조 때 지어졌다고 해요. 자세히 보니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무에 흠을 파서

일일이 끼워 맞춘 흔적이 보이네요.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낮에 이곳에 올라가 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젊은이들은 주로 밤에 이곳에서 서리한 수박을 먹으며 놀았대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잠시 광영정에 앉아 마을 경치를 감상해봅니다. 엄마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서 좋다”고 말합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충분히 목도 축인 것 같으니 다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무수천하마을(유회당 종가)

## 애뜻한 호심이 만든 아름다운 고택

유회당 종가에서 마을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언덕배기에 근엄한 자태를 한 유회당이 보입니다. 층층이 높게 쌓인 돌계단 위로는 대문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대문 한 가운데에는 ‘충효문’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머니 손을 잡고 조심조심 돌계단을 올라가 봅니다. 충효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는데요. 아담한 연못에 물고기들이 유유자적 헤엄치고 있고 연못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너머로 고즈넉한 고택들이 보입니다. 정원의 돌다리를 건너자 비로소 유회당 고택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유회당은 권이진 선생이 부모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지었다고 해요. ‘유회(有懷)’에는 늘 부모를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소나무와 배롱나무가 고즈넉한 풍경을 완성해주고 있는데요. 유회당 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기궁재와 묘를 지키기 위한 건물인 삼근정사가 있습니다. 부모를 참배하기 위한 고택을 지었다니 새삼 정성스러운 호심이 느껴집니다.

무수천하마을(유회당)



## 배롱나무가 있는 숲속 사찰 풍경

유회당 뒤편으로 1km가량 산행을 하면 사찰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패경사가 높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오르니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판에는 여경암이라고 쓰여 있네요. 사찰 앞에 있는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와 파란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을 이뤄냅니다. 돌계단을 올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불당은 한두 사람이 서서 절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스님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초 여경암은 권이진 선생이 부모의 묘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암자였으나 이후에는 후손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여경암 앞에는 옛 서당 건물로 사용됐던 ‘거업재’가 있는데요. 현재는 스님들께서 승방으로 사용 중이라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여경암 뒤편으로는 산신당이 있는데요.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무수천하마을(여경암)



## 구수한 옛날 고추장 맛

무수천하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농사, 공예, 전통 음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오늘은 다목적회관에서 이뤄지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고추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청국장 가루, 조청은 마을에서 직접 키우고 만든 것이라고 해요. 마을 사무장님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넣고 한참을 저어 줬는데요. 진땀을 빼는 모습을 할머니가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네요. 고운 빛깔로 완성한 고추장은 한 통씩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마을을 그냥 떠나기 아쉬워서 들어올 때 봐두었던 식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식당의 대표 메뉴인 백반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1인분에 6,000원으로 반찬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그날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은 나물무침, 멸치고추볶음, 오이무침 등 7가지 반찬에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잘 차려진 시골 밥상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밥을 먹다 손수 만들었던 고추장을 꺼내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평상시 먹던 고추장 맛과는 다른 느낌인데요. 달짝지근한 맛보다는 구수한 맛이 돌더

라고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옛날 고추장 맛’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든든하고 푸근해집니다. 고추장도, 밥도, 이 마을도 말이에요.

무수천하마을(전통 장 담그기 체험)

## 마음에 담고 싶은 얼굴

무수천하마을에서 약 15분을 달려 뿌리공원(효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유등천변에 널찍하게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봅니다. 막힌데 없이 사방이 시원합니다. 천변의 자전거길로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려오는 라이더들이 부럽네요. 서울살이에 지쳤던 마음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기분일까요.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온 동네 주민들도 정겹습니다. 저도 할머니 손을 슬며시 잡아봅니다. 입구에서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언덕 위쪽으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다리 건너로는 족보박물관과 뿌리공원이 보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었어요.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국내 유일의 효 테마파크로서의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2018년부터는 전국민 무료로 전환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먼저 찾았어요. 무수천하마을에서 별을 잔뜩 쏘이고 왔으니 쾌적한 실내활동도 좋겠죠? 건물 1~3층에 걸쳐 5개의 전시체험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각 실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방문객을 맞이해주시더라고요. 안내에 따라 천천히 전시체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건 제2전시실의 ‘미래의 나의 얼굴 체험’이었는데요. 태블릿PC로 얼굴 사진을 찍어 앱에 넣으면 수십 년 후의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엄마와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요. 할머니가 된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괜시리 짙하네요.



제4전시실 ‘담고 싶은 얼굴’은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드마카로 그리는 체험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완성한 그림을 보고는 모두 뽐뽐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가족사진이라는 뜻밖의 선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서 촬영하고 20초만 기다리면 무료로 인화된 사진을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참을 웃고 난 터라 그 어느때보다 환한 표정이네요. 제5전시실에서는 ‘노년생애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백내장/녹내장 안경을 써보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걸어보니 할머니와 보폭을 맞추는 일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 한국효문화진흥원

- 📍 중구 뿌리공원로 45
- ☎ 042-580-9000
- 🕒 09:00~17:30 야간교육 별도운영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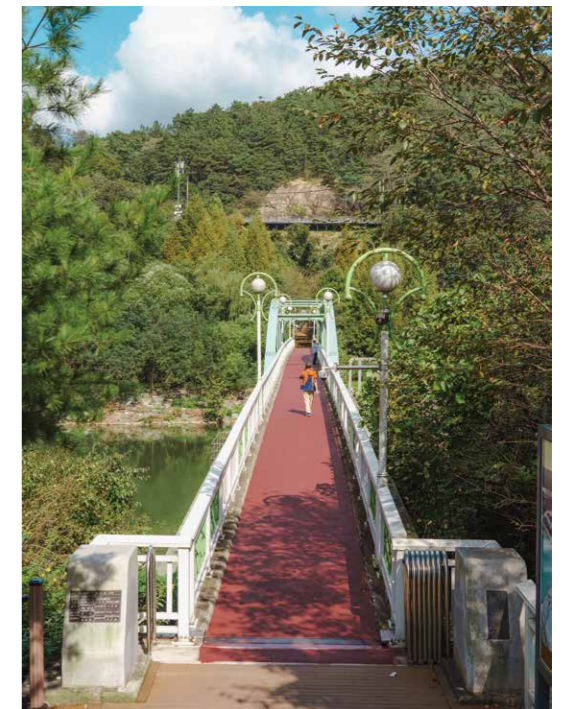
## 3대가 함께 걷는 길

오늘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뿌리공원입니다. 뿌리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성교’라는 다리를 반드시 건너

야 하는데요. 철교 아래로 흐르는 물이 흰히 보여서 제법 스릴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면 보이는 한두름의 전경은 눈을 간지럽게 합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과 나지막한 산이 공원을 감싸고 있는데요. 풍경은 눈에 담고 손에는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다리를 건너봅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관광안내소, 스낵카페, 매점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 앞으로 탁 트인 잔디광장과, 지붕을 엮은 벤치들이 소담스럽게 놓여있습니다. 매점 건물에서 몇 발자국을 더 걸으면 족보박물관이 있고, 뒤쪽 언덕에는 뿌리공원의 하이라이트인 성씨 조형물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뿌리공원

- 📍 중구 뿌리공원로 79
- ☎ 042-288-8300
- 🕒 하절기(3월~10월): 06:00~22:00  
동절기(11월~2월): 07:00~21:00  
연중무휴





## 옛 사람을 향한 향수를 느끼다

초입에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에 먼저 들어갔어요. ‘족보’라고 하면 자자손손 물려오는 오래된 책 정도로 떠올리기 쉬운데요. 한국의 족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대한 가계(家系)의 기록입니다.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찾기 힘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자, 한 가정이 살아온 시대의 사료이지요. 족보박물관은 이런 족보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시각만으로도 무게감이 있었죠. 대전이라는 도시에 족보박물관과 세계 유일의 효 테마공원이 들어선 게 우연은 아닙니다. 대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족보의 90%를 제작하는 출판사인 회상사(回想社)가 있는데요. 1954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대를 이어 원조 족보 출판의 맥을 이어오고 있죠. 이보다 앞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충청도 양반’ 문화도 대전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수도인 서울과 가까워 중앙 진출이 쉬웠고, 자연환경이 워낙 좋아서 느긋하고 인심 좋은 양반문화가 자리잡았던 것이지요.

오로지 족보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눈에 띄니다. 고려 김방경 장군의 후손들이 1580년대 간행한 안동 김씨 성보는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진품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책으로 1467년 발간된 안동 권씨 성화보의 복사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로 만든 석보, 휴대용 족보, 나이 어린 외손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한 충주 박씨의 자손보, 조선시대 문과 무과 급제자를 기록한 책 등 저마다 다른 가계 기록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시대별 족보의 변천사 속에서 마음에 담아둔 문구가 있었는데요. 족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힌트를 줍니다.

### 족보, 뿌리를 향한 그리움

(중략)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낳아주신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내 존재의 시원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한국족보박물관

📍 중구 뿌리공원로 79

☎ 042-288-8310

🕒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 형태로 만나는 나의 뿌리

족보박물관을 나와 고요해진 마음의 우물에 생각 한 줄기가 흘러들어 옵니다. 피를 나눈 3대의 동행. 그리고 뿌리공원. 시대를 넘어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매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아주 짧았던 사춘기 시절로 다시 시계를 돌린 듯 했습니다. 멀찍이서 저를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에 열른 다시 발걸음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나란히 성씨 조형물을 찾아볼 시간인데요. 족보박물관에서 이미 위치를 대충 확인해둔 터였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종합안내도를 다시 들여다 봅니다. 성씨 조형물이 모여있는 언덕에는 오솔길을 내놓아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244개의 성씨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참여하려는 문종이 많아서 점점 규모를 늘려간다고 해요. 조형물들은 각 문종이 직접 참여해 고유의 형상을 만들고 유래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미술 조각품을 연상케하는 추상적인 형상부터 책을 닮은 조형물, 아예 성씨 자체를 형상화한 것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담았을 문종의 자부심과 뿌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따라, 뚝뚝뚝 발자국을 찍어봅니다. 아빠와 나, 할머니, 엄마 이렇게 4곳의 조형물을 찾아보



고 각 유래문을 읽어봅니다. 처음 했던 그 질문은 아무래도 가슴 한 켠에 담아서 가야할 것 같네요.

성씨 조형물 언덕

## 작지만 화려한 공원의 야경

그 사이 어스름 해가 기울었습니다. 성씨 조형물 언덕을 내려오면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아옵니다. 공원 내 선착장에는 아직 오리배를 타고 있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12지신으로 꾸며놓은 샘물에서 손을 적셔봅니다. 저 멀리 우리가 건너온 만성교에 예쁜 조명이 켜집니다. 잘 가꿔놓은 정원에도, 잔디광장 주변 능소화 나무에도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들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야경명소의 장관이 펼쳐지는 순간인데요. 밤이 늦어도 발길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라고 해요. 사실 공원에서 가려진 뒤쪽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빛 터널도 있어요. 오월드로 가는 길과도 이어지는 길인데요. 물소리, 풀벌레 소리 가득한 방아미다리를 건너면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LED 은하수 터널이 등장합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에도 환하게 빛이 들어오네요. 농치기 싫은 야경을 그림삼아 이제 그 어느 날보다 따뜻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은하수터널



DAEJEON  
STORYTELLING

VOL.  
5

# 루브르가 멀면 대전이쥬



대전에서 타지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전 제법 이 도시가 익숙해졌지만, 간혹 여행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렸보디는 혼자서 돌아다닐 때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종 '나 홀로 문화 산책'을 나섭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 수목원 등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술공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요. 다른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전만의 낭만'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서구  
예술벨트  
권역

- 대전시립미술관
- 대전이응노미술관
- DMA아트센터
- 한밭수목원



## 여행준비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잡다한 생각을 떨쳐내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생명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적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또한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갈 때면 편한 복장과 신발을 고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깔고 앉을 수 있는 손수건도 필수입니다. 오랜만의 여가생활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저만의 룰(?)이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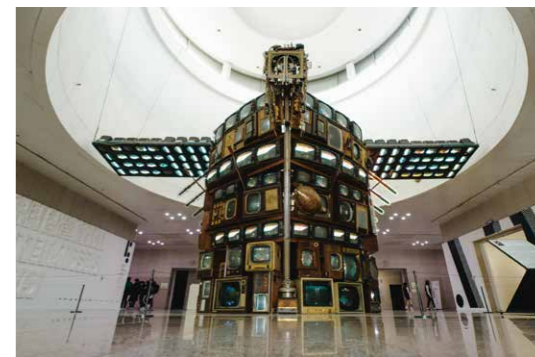
## 매일이,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버스 차창에 스치는 느린 풍경들이 좋아지고, 알미운 빨간 신호도 다 용서됩니다. 오히려 평소에 없던 여유가 뽐뽐 샘솟습니다. 618번, 파란 버스는 달리고 달려 한밭수목원에 도착합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승객 대부분이 이곳에서 내리네요. 굴러가는 나뭇잎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여고생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심 없이 떠듭니다. 엄마와 함께 걷는 아이의 손에는 스티로폼 비행기 장난감이 들려 있습니다. 한창 무르익은 10월의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관통하는 빛을 손으로 막으며 대전시립미술관으로 걸어 갑니다. 오늘은 뚜벅이답게, 걸어서 모든 코스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 마음을 두드리는 '취미의 발견'

한껏 여유로운 주말, 대전시립미술관 앞 분수가 힘차게 솟구칩니다. 살랑 부는 바람에 물방울이 흩날리고, 그 속에서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미술관이지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시야가 뺨 뚫려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건물은 청명한 하늘을 가로지르고, 그 주위에는 넓은 잔디밭과 멋드러진 조각상들이 툭툭 놓여 있습니다.

이날은 '대전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대전비엔날레는 대전시립미술관의 격년제 예술 프로젝트로, 과학기술 융복합 영역에서 예술을 선보여 왔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6개국 16명(개)의 작가(팀)가 참가했다죠. 티켓을 끊고 입장합니다.



전시는 시립미술관 1전시실부터 4전시실까지 주요 테마로 구분되고, 공동주최인 KAIST 비전관에서 별도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전비엔날레 2020은 비대면 전시 해설 어플리케이션인 AI도슨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슨트나 도록을 접하는 것보다 작품과의 교감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작품들을 감상할 때는 작품 설명이나 오디오 가이드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어폰으로 듣는 대전비엔날레 2020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공지능과 인지 사이'를 주제로 한 1전시실,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신승백·김용훈 작가



의 '넌페이셜 포트레이트'라는 작품인데요. 완성된 초상화에서 얼굴을 인식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인간과 기계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영상 속에서 화가들은 미션을 수행하듯, 얼굴 없는 얼굴을 열심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2전시실은 '인공지능이 태도가 될 때'가 주제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연구에서 AI 스스로가 아닌 연구자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무엇보다 산업용 로봇을 앞세운 팀보이드의 설치작품 두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Super Smart Machine'.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보는 듯 신기합니다. 스위치를 '딸깍' 올려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조명을 켜는 과정이 꽤 과장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Making Art-for Stock Market'입니다. 실시간 증권시세 데이터를 가공해 로봇

팔이 그림을 그리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하루하루 다르게 흘러가는 증시에 따라 매일 다른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제3전시실은 '데칼코마니의 오류', 인간을 모델로 탄생한 인공지능에 담긴 수많은 오류와 허점, 그리고 아이러니를 살펴봅니다. 박얼 작가의 '신경쇠약 직전의 기계들'은 작품 이름이 꽤 인상적인데요. 이는 특정 로봇만 계속 쫓아다니거나 자신의 뒀에 빠져 계속 원위치로 돌아오는 로봇들을 통해 인간의 강박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4전시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새 시대의 도구인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봅니다. 불과 1~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모하며 새로운 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공지능은 실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학습 패턴을 하나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술가들의 시작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AIST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구성도 색달랐습니다. 이병주 교수팀의 '스킨'은 접촉하는 무체에 대한 8가지 특성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민감한 터치 표면에 관람객이 닿으면 상호작용하는 작품입니다. 컴퓨터의 비주얼 오디오주행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자체 제작 코드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모든 전시를 관람하고 나오니, 인공지능 체험프로그램 '두근두근 미술관'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송하면, 미술관 벽에 설치된 디지털 액자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관객 친화형 프로그램입니다. 관람객 누구에게나 작가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대전을 흔히 과학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특수성에 예술이 접목된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 너무나 대전다운, 대전을 위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설레는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 대전시립미술관

📍 서구 둔산대로 155 둔산대공원

☎ 042-270-7370

🕒 하절기(3월~10월): 10:00~19:00

동절기(11월~2월): 10: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사부작 사부작 작품 속을 걷다

다음 방문할 곳은 천재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삶과 그의 예술작품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대전이응노미술관'입니다. 크고 웅장한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이 바로 이웃한 곳에 있지만,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단독적인 예술작품처럼 보이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설계한 미술관입니다.

반듯한 콘크리트 조각을 열기설기 엮은 듯한 독특한 지붕은 이응노의 작품 목숨 수(壽)를 닮아있습니다. 그 틈



새로 쏟아지는 빛과 그림자는 마치 한옥의 처마를 연상케 합니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술관에는 유독 많은 대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이응노의 이전 호가 죽사(竹史)였을 정도로 생전에 대나무를 많이 그렸던 것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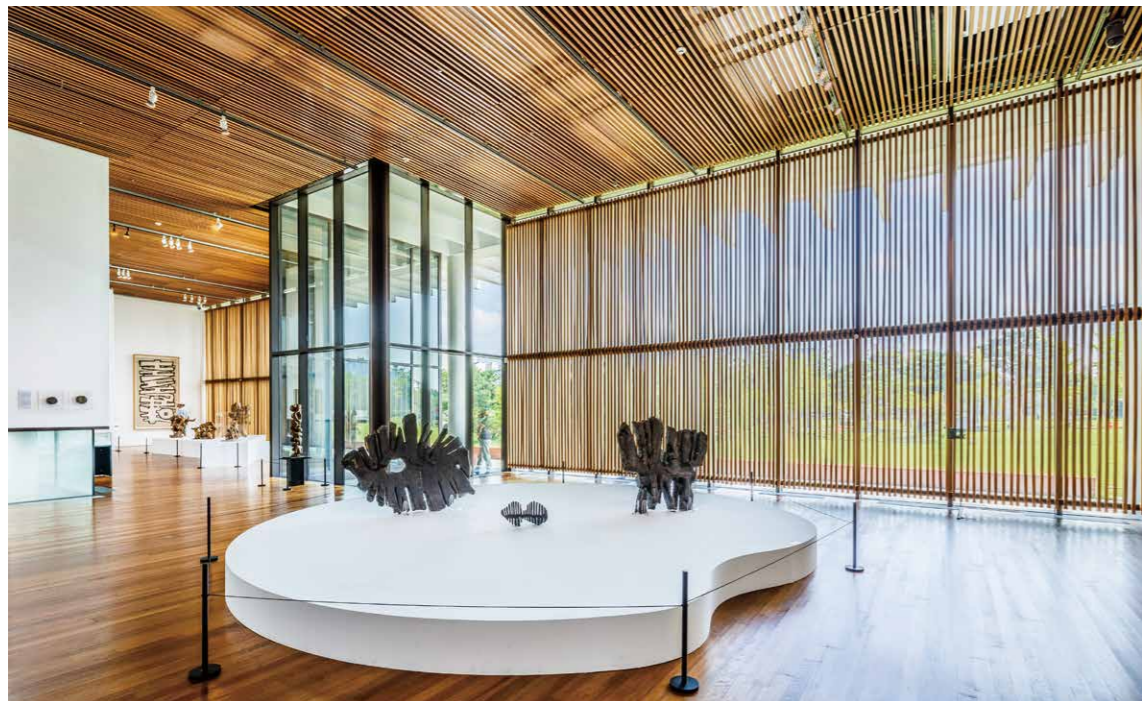
이응노는 문자와 기호, 드로잉을 결합해 새로운 추상 양식을 발전시킨 화가입니다. 주로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전통적인 한국화가 아닌 추상화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캔버스에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 작업도 했는데 천 위에 한지로 작업한 콜라주 작품 '구성'은 거친 질감과 독특한 형태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부작 사부작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벽과 벽을 잇지 않아 각각의 전시실이 자연스레 하나로 연결되고요. 벽면과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이 스며들죠. 비엔날레가 온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었다

면, 이곳은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색을 모두 품은 투명한 유리 건물이 탁 트인 개방감을 선물합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연못과 나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전이응노미술관은 이전에도 두세 번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찾은 이유는, 새로운 예술과 이응노와의 만남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마지막 기획전시 '유연한 변주'는 디지털 시대의 고암 작품을 변주한 만큼, 전시장에는 3명의 작가가 모티브로 삼았던 고암의 작품 또는 유사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 동시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미술관 외관에 '프로젝션 맵핑(빛으로 이뤄진 영상을 상영, 대상의 시각적 변화를 주는 기술)'이 상영되는 작품과 연계해 심도 있는 작가들의 세계, 고암과의 연결성을 찾는 기획전입니다.

강정현 작가는 고암의 '군상'과 평행선에 있습니다. 강 작가의 작품에는 모든 인간이 '픽셀(Pixel)'형상으로 나타나



는데요. 군상에 나타난 인간의 희로애락이 디지털 시대에는 픽셀이라는 것으로 변주돼 보인다는 발상인 셈입니다. 정화용 작가는 독창적인 시각 세계를 구현한 고암 작품의 계보를 잇습니다. 정 작가는 만화경처럼 흐르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 승무를 추는 무용수의 몸짓 그리고 유년 시절의 기억과 상상이 모호해지는 시점을 영상화해 21세기 시각 세계를 보여줍니다. 홍지운 작가는 꽃을 매개로 퓨전 동양화라는 이색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오방색과 아크릴, 동양의 모필과 서양의 붓을 과감하게 섞어 새로운 문자 추상, 새로운 회화를 창조해냈습니다.

매번 모든 작품을 집중해서 보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을 마주하고 교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잠시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

서도 바라봅니다. 작품이 나에게 계속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어느덧 시곗바늘이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술관 앞 조각공원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냇다 잔디밭 한 편에 손수건을 깔고 자리를 잡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 않은 평온한 풍경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주문한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맛있게, 무얼 먹을까?' 한참을 검색하다 선택한 메뉴는 물방울 초밥입니다. 비주얼이 예뻐서 주문했는데, 맛도 굿! 이 뿌듯함은 뭐죠. 뭔가 알차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전이응노미술관

📍 서구 둔산대로 157 이응노미술관

☎ 042-611-9800

🕒 10: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놀이가 곧 예술 '형태·느낌 놀이터'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새빨강고 셋노란 단풍의 유혹을 이겨내고, 엑스포시민광장 2층에 위치한 DMA아트센터로 향합니다. DMA아트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형태·느낌 놀이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행인 듯 나란히 입장!

이곳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을 보고, 작품에서 받은 느낌을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유쾌한 놀이처럼 자유롭게요. 전시장 한가운데에 종이상자들이 널려있습니다. 아이들은 블록 놀이처럼 쌓았다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며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남매로 보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을 이용해 칠교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 앞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따라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말 그대로 ‘놀이터’입니다.

조금 더 색다른 체험을 즐겨볼까요? 즐거운 3가지 미션과 함께 미술관 소장의 이용백, 박정선, 박용선 작가의 예술 작품을 직접 감상하며 형태를 색다른 시점에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박용선 작가의 ‘빛의 형태’. 영상 속 어두운 공간에 하얀 문과 창이 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며 움직입니다. 작품은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에 따라 빛의 모양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화면 속 분위기는 어떤 느낌인가요? 이렇듯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일

상의 시간 속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순간을 일깨우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집니다.

박정선 작가님의 작품을 활용한 두 번째 미션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입니다. 작품 앞, 노란 사각 테두리 안에 섭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서서히 몸을 움직이면 작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죠. 나의 움직임에 따라 대나무 그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사르륵 움직입니다.

테이블 위에 예쁜 꽃이 꽃힌 화병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용백 작가님의 작품을 활용한 세 번째 미션인데요. 커다란 영상 속에는 조화로 덮인 배경 속에 보호색 옷을 입고 전진해나가는 총을 든 군인들이 보입니다. ‘천사와 꽃 - 전사와 전쟁’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한 작품에 배치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꽃과 군인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초면인 꼬마 친구와 빈백에 앉아 잠시 들여다봅니다.

이 밖에도 각기 다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드로잉을 한다거나 선을 따라 몸을 움직이는 등 자신의 몸으로 형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짧은 동선이지만, 동심으로 돌아간 듯, 순수한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 DMA아트센터

📍 서구 둔산대로 169

☎ 042-270-7370

🕒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자연을 품은 도시, 자연이 품은 도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트랙을 따라 달려갑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 친구들도 보이네요. 트랙 가운데는 넓은 그늘 광장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DMA 아트센터까지 한데 모여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엑스포다리까지 쪽 뻗은 시민광장과 그보다 더 넓은 면적의 한밭수목원이 양옆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밭수목원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작년 봄, 우연히 서원을 둘러보았다죠. 오늘은 고민 없이 동원으로 향합니다. 4월의 수목원이 신록의 물결이었다면, 10월의 수목원은 어떤 색깔과 자태를 뽐낼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동원에 들어서면 초입에 넓은 잔디광장과 어린이놀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들이 이제껏 보던 것과

는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아 에너지를 만드는 자가발전기가 장착된 것인데요. 과학의 도시 대전답죠?(웃음) 곳곳엔 그늘막과 벤치, 테이블이 설치되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보입니다.

수목원을 제대로 관람하려면 하루는 족히 걸립니다. 그렇기에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코스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650m의 ‘은빛여울길’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장미원에 닿았습니다. 5월의 여왕은 10월에도 만개해 있네요. 봄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가을 장미 특유의 은은한 매력을 뽐내면서 말이죠. 장미만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자란 로즈마리며 각종 허브들이 앞다뿔 향기를 뿜어내고 있고요. 수목원 곳곳에 온갖 가을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벨벳 느낌의 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멕시칸 세이지, 겹겹이 귀여운 아스타, 작고 빨간 열매가 알차게 매달린 피라칸다, 줄기에 붙어 있는 날개의 생김새가 특이한 화살나무, 하얀 꽃을 피워내는 미국쑥부쟁이 등 가을꽃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피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 쪽 내려갑니다. 수목원 끝에 다다르자, 전망대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올라

가 보는데요. “와아~” 해가 기울대로 기운 시간이라 수목원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연못을 두고, 걸어왔던 길과 걸어갈 길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저 멀리 물레방아와 화목정(花木亭)도 보이네요.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웠다면 저곳에 앉아서 편안한 사색에 빠져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수변데크에 올라섰습니다. 수생식물원에 들어선 것인데요. 하늘로 쏘아올린 물줄기의 싱그러움이 리듬감을 더하고, 숨털처럼 하얀 꽃을 틔운 갈대가 바람에 일렁입니다. 짹짹 속히 열 마라도 더 되어 보이는 참새들이 이쪽저쪽을 옮겨 다니며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서 참새라니요! 지나가던 아이들도 발길을 멈추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연못엔 개구리밥과 마름, 수련 입자루들이 물 위를 동동 떠다니고요. 큰 잉어들이 꼬리를 살랑이며 유유히 헤엄쳐갑니다.

수생식물원 길을 따라 건너가면 핑크몰리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인생샷을 제조 중인 듯 이 포즈 저 포즈를 지으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살랑살랑 나부끼는 핑크몰리 옆에는 빨강게 달아오른 자줏빛 촛불 맨드라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계절은 매일, 조금씩, 깊어갑니다. 낮익은 풍경은 그 모습을 달리하며 변화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자연이 숨 쉬고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밭수목원

📍 서구 둔산대로 169

☎ 042-270-8452

🕒 하절기(4월~9월): 06:00~21:00

동절기(10월~3월): 08:00~19:00

열대식물원: 09:00~17:30

휴무일: 월요일 (동원, 열대식물원), 화요일 (서원)



DAEJEON  
STORYTELLING

VOL.  
6

# 애들 풀어놓을 땐 대전이쥬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실외활동이 줄어들수록 몸은 근질근질 주말을 기다리며 평일의 지루함을 견디는 건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엔 어딜 가볼까? 한참을 고민하고 검색하다 레이더밍에 포착된 곳은 국립중앙과학관 이미 재작년에 한 번 다녀왔던 곳인데요.

우리 집 두 녀석의 마음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소로 이만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또 오자고 했던 그때의 약속을 더 늦기 전에 지키기로 합니다.



유성  
과학체험  
권역

- 국립중앙과학관
- 지질박물관
- 카이스트(견학)
- 대전시민천문대

## 여행준비

이왕 대전에 가는 김에 새로운 장소들도 둘러보고 와야겠지요. 네 가족이 노트북 앞에 웅기종기 앉아 각자 가고 싶은 곳을 하나씩 선택하기로 합니다. 먼저 큰 애는 커다란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대전시민천문대가 있지!" 자칭 공룡 박사인 작은 애는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사진을 보고는 지질박물관을 골랐고요.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카이스트 견학을 택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근거 없는 기대감과 부모의 욕심이 반영된 여행지랄까요(웃음) 강변 위

엑스포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야경맛집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1박 2일, 대전입니다.

## 자연, 과학, 꿈, 공룡이 있는 곳으로

밤새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살갗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요. 서서히 걷히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설레는 마음 다잡으며 부지런히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전주에서 차로 한 시간 20여 분을 달려 유성톨게이트에 들어섭니다. 창밖에는 간밤에 내린 비로 흠뻑 젖은 노란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네요. 차는 어느새 대덕대교를 건너 과학도시의 메인 플레이스에 진입합니다. 과학공원네거리의 왼쪽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자리하고, 오른쪽에는 한빛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물들도 부지런히 올라서고 있네요.

## 배움의 대장정, 과학관이 살아있다!

1970년대 말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터를 잡고 1993년에 대전세계박람회까지 열리면서 대전은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그 덕에 다양한 과학체험공간이 자리하는데요. 그중 손꼽을 만한 곳이 바로 이곳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앞에 뉴턴과 장영실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과학자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란 글이 새겨진 꿈돌이도 있고요. 삼각대를 펼치고 여기서 우리 가족 나름의 첫 인증샷을 남기기로 합니다. "보이~"

국립중앙과학관은 상설전시관, 꿈아띠체험관, 자연사관·인류관, 천체관, 생물탐구관, 미래기술관, 과학기술관, 자기부상열차 등 여러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을 모두 돌아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공룡과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연사관·인류관과 과학기술관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이제 7~8살이 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사관·인류관은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관은 해외여행을 떠나면 그 도시에서 꼭 봐야 할 코스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입장하자마자 커다란 공룡의 전신 골격과 다양한 동물의 표본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와! 엄마, 여기 꼭 영화 속에 나오는 곳 같다! 다 살아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박물관이 살아있다'란 영화를 말하는 건가 봅니다.

실제로 그 퀄리티가 아주 높아서 놀랐습니다. 한반도에 형성된 암석과 그 위에서 생존했던 생물 화석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중생대 후기 백악기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 진본골격'과 현생 코끼리의 조상인 '성체 매



머드와 새끼 매머드'를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 소장 세계 각지의 동물 박제와 골격 표본을 통해 세계와 한반도 자연사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가 봅니다.

한쪽에서 판게아 울티마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래에 형성될 초대륙의 형태를 영상으로 감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억 년 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토날라이트'와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인 '스트로마톨라이트'(10억 년)를 살펴보고요.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라 아이들은 물론 우리 부부까지도 박물관 투어에 폭 빠졌습니다.

2층 인류관은 처음 방문합니다. 인류 출현에서부터 언제 유인원과 갈라져 어떻게 독자적으로 진화했는지를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흔적으로는 팽이 같은 석기로 된 농경 도구와 곡물, 토기에 식물의 눌린 자국 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구석기, 신석기 등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본 것들을 잘 기억해주겠지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과학기술관입니다. 이곳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박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건물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자석에서 힘을 얻는 열기구 체험도 해보고요. 자기만의 QR코드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봅니다. 아들 두 녀석에 아빠까지 합세하여 모두 QR코드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네요. 완성한 뒤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공을 던져 스크린에 나타난 물체를 맞추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그냥 지나

칠 수 없나 봅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서 대기합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체험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룡이랑 동물들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크긴 컸나 봅니다. 체험 위주의 전시물이 많은 이곳에 더 폭 빠진 것 같아요.

시대별로 만들어진 로봇 앞에서 한참을 서서 지켜봅니다. 특히나 아인슈타인 얼굴을 하고 있는 휴고는 얼굴의 근육까지 섬세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 밖에도 자판기는 동전을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 과속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무거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 우리의 일상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우다다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자연사관과 과학기술관 뒤로 우뚝 서 있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로 달려갑니다. “와~” 실물 크기로 전시한 모형이라 그런지, 그 크기와 위엄에 압도되는데요. 우주발사체 원편에는 작은 음악당이, 오른편에는 도시락도 먹고 심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캠핑장이 꽤 큰 규모로 자리합니다. “애들아 여기서 우리 도시락 먹고 가자!” 엄마 아빠는 앉아서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랜만에 싸온 집 김밥을 우걱우걱 집어 먹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앞두고 체력보충이랄까요.

유익한 체험공간과 다양한 전시가 가득해 이곳은 올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이해하고 좋아할 만한 전시들도 곳곳에 있고요.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 국립중앙과학관

📍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 042-601-7979

🕒 09:30~17:5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 오랜 자연의 신비, 땅속 세계를 탐험하다

엄마, 아빠가 부지런해질수록 아이들의 여행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죠. 특히 과학관과 박물관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곳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간단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요. 준비성이 좋은 남편은 역시나 이동 중에 미리 다음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지구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 45억 살! 어마어마하지? 그 긴 세월 동안 지구의 표피, 그러니까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과 광물, 화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 만들





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러 가는 거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속에 뭐가 있나 잘 보고 오자~”

지질박물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문을 지나 오른쪽  
에 위치합니다.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곳은, 다양한  
암석, 광물, 화석, 지질표본을 수집 및 연구 전시하고 있  
습니다. 상설전시와 특별기획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지구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질박물관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산책로를 따라 조성  
된 야외전시장에서 다양한 광물과 암석 표본을 구경하  
기로 합니다. 아이가 나무줄기가 화석화된 ‘규화목’에 관  
심을 보이는데요. 암모나이트나 삼엽충 화석들은 익숙한  
데, 커다란 나무화석은 저희 부모도 낯설긴 마찬가지입  
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산 분출암인 현무암과 퇴적  
물에 묻힌 나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전, 목질 조직

에 주변의 광물질이 침투해 나무형태와 조직이 화석으로  
보존된 것이라고 해요. 규화목 외에도 점토질, 탄산연암,  
결핵체, 귀갑석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중앙홀의 메인에 커다란 공룡  
두 마리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르스와 에드몬토니아 표  
본 앞에서 아이들은 순간 멈칫. 얼음이 되었네요. 역시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아이들은  
턱뼈, 발톱, 이빨 등 하나하나를 자세히도 봅니다.

제1전시관에는 지구, 화석과 진화, 지질탐사 3가지 주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땅덩어리는 계속 움직이  
느라 바쁘죠. 그런 모습들을 지상 2만km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공중에 구현한 S.O.S라는 전시물이 눈에 들어옵  
니다. 지구뿐 아니라 화성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며, 열두

가지 영상을 설명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에서 발견된 진귀한 화석들과 복원모형을 통해 생명 진  
화의 역사와 그 다양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질탐사로  
제작되는 지질도와 바다에서 이뤄지는 물리탐사 과정도  
소개합니다.

“여기에 있는 삼엽충은 우리나라의 태백지역에서 나온  
약 4억8천만 년 전에 살았던 삼엽충이래. 바다에 살았  
던 삼엽충이 지금 산속에서 발견된 거지. 이런 것을 통  
해서 계속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위로는 바다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들의 표본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질박물관 곳곳이 전  
시의 장으로 활용되어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제2전시관으로 들어섭니다. 암석의 세계, 지질 및 암석  
구조, 광물의 세계, 광물과 인간생활 코너로 구성되었습  
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암석의 분류와 생  
성장소, 연대측정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죠. 습곡과  
단층처럼 암석에 남은 지질구조와 이들이 보존된 현장  
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원석도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태어나  
서 이렇게 많은 돌맹이들이 있는 박물관은 처음이야”  
“엄마도 이렇게 큰 보석은 처음 봐~” 그중에서 눈에 띄  
는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에서 나온 자수정입니  
다. 말 그대로 자주 색깔의 수정으로써 보석으로의 가치  
가 높다고 해요.

2층에는 지질과학교육실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산출  
암석과 국내외의 광물 표본을 육안과 현미경으로 직접 관  
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질도를 검색하여 우리가 살

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  
다. 두 녀석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현미경 속을 들  
여다봅니다. 마치 과학자라도 된 듯 꽤 진지합니다. 이  
밖에도 지질박물관에는 지질과학탐험실, 영상실, 어린  
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교과서  
밖 교과서. 지구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지질박물관

📍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2-868-3798

🕒 10:00~17:00(입장마감 16:30)

휴무: 근로자의 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 10년 후 과학자를 꿈꿔요!

아이들의 꿈은 다양합니다.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지나가는 경찰차를 우연히 본 날에는 경찰관을 꿈꿨다가 또 어느 날은 힘이 무지 센 공룡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희망 직업 ‘과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날입니다. 과학관과 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 여행지는 한국과학기술의 미래를 느낄 수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입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어느 대학들과는 다르게 한적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을과도 잘 어울리고요. 캠퍼스가 넓어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고요. 차를 타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둘러보기로 합니다. 학생들을 보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구조의 건물이 하나 눈에 띄니다. 커다랗고 하얀 건물 위로 직사각의 갈색 건물을 엇갈리게 쌓아놓았습니다. 마치 거인들끼리 젠가를 하는

것 마냥, 무심한 듯 푹!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건물엔 수많은 정사각의 창들이 나 있고, 2층 측면부는 시원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 커다란 창문이 열리면, 전투기가 나와서 날아갈 것 같다고요. 참 기발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에 재개관한 ‘학술문화관’이라고 해요. 도서관과 비전관, 그리고 문화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건물이 오픈되어 있네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문화관은 24시간 개방, 외부인도 출입가능하다고 해요. 문화관과 도서관은 한 층에서 별다른 공간 구분 없이 공존합니다. 연구나 공부를 하다가 자료가 필요하면 바로 도서관으로 이동해 공부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겠더라고요. 문화관 내에 있는 카페 밖으로 넓은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카이스트에는 이렇게 건물마다 테라스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햇볕을 쬐며 광합성도 하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내판을 따라 도서관 1층으로 들어가면 카이스트 서점과 기념품 매장 맞은편에 카이스트 비전관이 있습니다. “전인미답(前人未踏),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다” 입구에 새겨진 글자처럼 카이스트는 1971년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죠. 이곳은 카이스트의 역사와 연구성과를 수집, 보존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되는지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TV 동물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거위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카이스트 캠퍼스를 뒹뒹뚱 거닐던 거위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신호등을 이용하는 장면이었던가요? 오리연못에 오니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못에서 참방참방 노는 거위들을 보니 괜히 반갑습니다. 거위는 이 학교의 명물이 된 듯해요.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네요. 캠퍼스에는 실제로 약 16마리 정도가 산다고 해요. 지금도 몇 마리는 교정을 거닐 테고, 또 몇 마리는 신호등을 건너고 있겠지요.

시원하게 땀 뚫린 축구장 옆엔 풋살장 2개와 야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오른쪽으로 ‘스포츠컴플렉스’

라는 커다란 규모의 건물이 자리합니다. 카이스트 체육관인데요. 체육관마저 SF영화에 나오는 연구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농구장과 헬스장이 있고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왠지 공부만 할 것 같은데, 곳곳에 이렇게 운동시설도 잘 되어 있네요. 강한 체력에서 정교한 연구가 나오는 걸까요?

카이스트 정원 한 편에 뉴턴의 사과나무가 상징처럼 심겨 있습니다. 실제 뉴턴의 사과나무를 네 번째 접목한 것이라고 해요. “진짜? 정말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정말 신기해했어요. 카이스트 하면 과학, 한국의 과학자 하면 장영실이죠. 장영실 동상도 뉴턴의 사과나무 옆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자 기념사진을 한 장 ‘찰칵’ 남깁니다.

### 카이스트(견학)

- 📍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 ☎ 042-350-2114

## 별 볼일 없는 세상, 별 보러 가자

날이 어둑어둑할 무렵, 우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대전 시민천문대로 향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늘에 항상 떠 있는 별이지만,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기대했던 곳이라, 미리 사전예약도 하고 승인 메일도 받아놓았습니다.

대전시민천문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문대답게 으스스한 산속으로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문대로 향하는 길, 바닥에는 별자리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간밤에 떨어진 낙엽들이 찰싹 붙어있습니다.



총 3층 규모의 천문대 건물 앞에는 나로호와 우주복이 눈길을 끄니다. 우주복은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얼굴이 뚫려있네요. 개구쟁이 녀석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한 놈씩 얼굴을 쓱 집어넣고 사진을 찍습니다. 입구에는 별 모양의 미래, 문화, 창조, 교통, 행복, 첨단과학, 녹색 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체투영실,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전시실 순서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가상 별자리 영상을 볼 수

있는 천체투영실로 이동합니다. 원형으로 된 공간 가운데 천체투영기가 자리하고 그 주위로 의자들이 빙 둘러 놓여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디지털 천체투영기로 행성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며 설명을 듣습니다. 그 이후엔 광학식 천체투영기로 투영된 별자리의 모습과 은하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적어서 더 잘 보이는 거라고요. 광공해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별 보기도 어렵다는 말이 참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엔 주관측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굴절망원경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망원경의 대물렌즈 지름이 농구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닫혀있던 원형돔이 열립니다.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아이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밤에는 주로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파인 크레이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분화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달의 일부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묘한 쾌감마저 느낍니다. 보조관측실에는 망원경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정한 행성이나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목성과 토성, 쌍성을 번갈아 가며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실 정도 되는 크기에 우주와 별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모형을 비롯해 우주의 신비한 현상들이 그림과 모니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차이에 따라 행성마다 달라지는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모션인식 게임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있다니요. 아이들 방과 후 또는 퇴근 무렵 저녁식사를 마치고 산책 겸 별을 보기 좋은 곳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쳐있었습니다. 결국 소파며 침대 여기저기 드러눕고 말았죠. 그래서 저녁은 치킨을 배달시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세팅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반짝이는 갑천 엑스포다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치킨도 잠시 잊고 야경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과학이라는 테마 하나만으로도 대전의 볼거리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느꼈을까요? 재잘재잘 떠들어대는 아이들을 보며, '너희도, 우리도, 한뼘 더 성장했구나' 깨닫습니다.



#### 대전시민천문대

📍 유성구 과학로 213-48 대전시민천문대

☎ 042-863-8763

🕒 14:00~22: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1일, 명절, 공휴일 다음날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달고 살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포그만 녀석이 엄마, 아빠 스마트폰을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보여주지 말아여!’ 항상 다짐하면서도, 손에 쥐여 주기만 하면 어느새 조용해지니 우리 부부에게도 양날의 ‘육아템’인 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서 스마트폰을 떼어낼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연과 가까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 우리 가족이 보내는 하루의 풍경은 피톤치드를 가득 머금은 숲에서 시작합니다.





보문산  
숲 놀이  
권역

- 보문산 숲치유센터
- 대전목재문화체험장
- 사정골식물원
- 사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 ● ● 여행준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이라 해도 예약이 필수인 곳이 있습니다. 보문산 숲치유센터와 대전목재문화체험장이 그러한데요.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인원수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늦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을 완료합니다. 또 보문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어요. 물론 장비 대여가 가능하지만, 아이의 인라인스케이트와 장갑, 헬멧은 따로 챙겨둡니다. 이 외에는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죠. 그저 아이와 함께 숲속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일만 남았습니다.

● ●

## 여행의 시작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향한 지 1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잠시 여행의 피로도 덜고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휴게소는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고소한 버터 향에 달콤 짭조름한 알감자와 아이가 매번 노래를 부르는 소떡소떡. 그리고 휴게소 간식 중 빼놓을 수 없는 호두과자까지. 기분도 업!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는 기분일까요. 배도 두둑이 채웠으니 이제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네요.

## 아이와 숲에서 나누는 행복한 교감

아이가 클수록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럴 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자, 주말마다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은 처음이에요.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보문산 숲치유센터입니다. 대전시 중심부 남쪽에 솟은 산인 보문산(457.6m)은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보물산’으로 불려오다가 보문산이 됐다고 해요. 오늘 이곳에서 숲 해설가님과 함께 숲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여섯 살인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 다섯 명이 함께요!

오감을 통해 숲의 모든 것을 직접 느껴보는 숲 체험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피톤치드가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숲에 사는 크고 작은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살균물질이에요. 하루 중 오전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이 오전 10

시죠? 이 시간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닿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의 따뜻함에 절로 걸옷을 벗게 됩니다. 어느새 사방이 고요해지고,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짓밟는 소리와 바싹 말라붙은 잔가지가 ‘뚝 뚝’ 부러지는 소리가 늦가을의 운치를 더합니다. 숲 해설가님이 아이들에게 보문산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소개해줍니다. 갈참나무,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등 가을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비롯해 하얀 구절초와 노란 금계국, 보라색 잔잔한 산 박하 등 아름다운 가을 야생화,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가는 개구리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요. 아이들은 역시나 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숲에서는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됩니다. 두툼한 나무껍질을 만져보고, 커다란 나뭇잎을 주워 엽서도 만듭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서 지렁이도 보고요. 그렇게 숲속에서 자신만의 장난감을 찾아냅니다. 한참을 놀다가, 숲 해설가님이 한 가지 놀이를 제안합니다. “우리 곧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를 위해 ‘다람쥐 밥상’을 차려볼까요? 우리처럼 골고루 먹어야 다람쥐도 건강해져요. 다양한 열매와



잎들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은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도토리과 솔방울, 이름 모를 열매와 알록달록 나뭇잎을 주워 옵니다.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되어 줄 곤고 예쁜 잔가지를 찾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또 다른 놀이로, 추운 겨울날 먹이를 찾기 어려운 산새들을 위한 ‘땅콩 조각 숨기기’도 합니다. 솔방울 틈과 나뭇가지 사이사이, 송진이 타고 흐르는 나무 기둥에, 고사리손들이 땅콩 숨기기에 바쁩니다. 울겨울, 배고픈 산새들이 잘 찾아와 먹겠지요?

숲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주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숲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놀고, 지나는 계절을 느껴보았던 오늘 하루, 아이들도 오래오래 기억해주겠죠?

#### 보문산 숲치유센터

📍 중구 보문산공원로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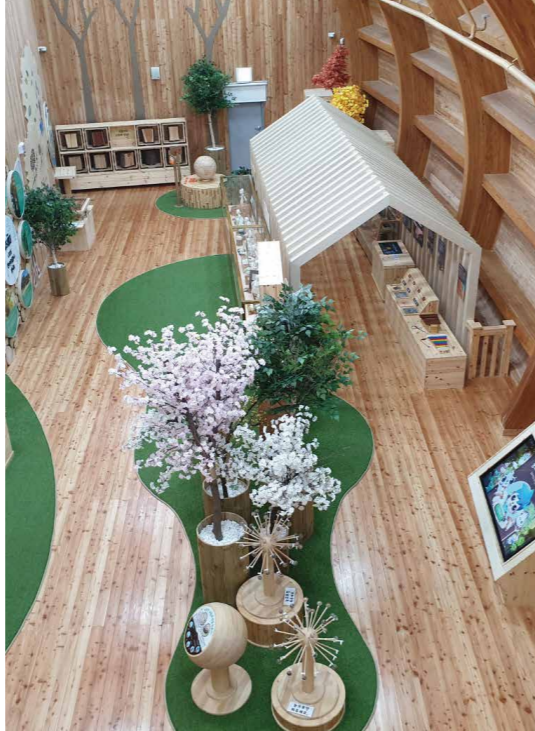
☎ 042-270-7878

🕒 09: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명절, 기타

### 보고, 듣고, 만지고, 즐기고!

숲 체험을 마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대전목재문화체험장을 찾아갔습니다. 보문산 숲치유센터와 거리도 아주 가깝습니다. 고개를 들면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깐요 1, 2층으로 된 대전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은 공간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나무상상놀이터가 자리하고, 사무실이 있는 오른편에는 전시실, 목공체험실, 숲향기방이, 건물 밖에는 야외놀이터, 숲속 음악당, 야외쉼터 등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수많은 파랑새를 따라 2층 전시실로 올라갑니다. 숲향기방 팻말이 보이네요. 상쾌한 나무 향기로 가득한 이곳엔 솔방울과 동글동글한 나무칩이 한 곳에 가득 모여있고요. 한 편에는 목공 강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칙칙’ 로즈마리 향, 파인(소나무) 향 등 옷에 뿌리는 천연 스프레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 저것 봐” 아이가 뱅글뱅글 도는 나비가 그려진 나무 모빌을 가리킵니다.

복도를 따라가면 목공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목공체험실이 있습니다. 아동반, 초급반, 중급반, 전문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막 수업이 끝난 아동반 강의실을 잠시 둘러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강의실엔 아이들 키에 맞춘 나무 책상과 의자가 귀엽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집 꼬맹이는 제 자리도 아닌데 얼른 가서 앉아보네요. 수납장에는 알록달록 사인펜과 색연필, 물감들이 있



고요.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공룡과 바퀴 달린 자동차, 기차가 전시되어 있네요.

체험실을 나와 반대쪽 복도로 이동하면 1층 영상체험실이 내려다보입니다. 후다닥 내려가 봅시다. 이곳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의 테마로 꾸며놓았습니다. ‘2월, 보문산에 꿈나무를 심어요’ 앞에 멈춰 섭니다. 영상을 통해 나무를 심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나무에 색도 입혀주고, 이름도 입력하면 내가 심은 씨앗이 싹트고 나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천국 ‘나무상상놀이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만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보호자 2인까지는 무료입장이라, 아이만 1인 5,000원 요금을 내고 입장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세상에 숲속 키즈카페가 여기 있었네요. 커다란 나무 미끄럼틀과 볼풀장, 갖가지 나무로 된 놀이시설들이 1층에 자리하고요. 2층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나무로 된 말에 올라타 흔들흔들, 그러다

나무 낚시대를 손에 쥐고 물고기를 잡고요. 바구니를 들고 와 시장 놀이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한바탕 놀았더니 어느새 허기가 집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보리밥’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 양옆으로 보리밭을 파는 식당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더랬죠. 건강한 보리밥 한 상 먹으러 식당에 들어섭니다. 1인분에 5,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한입니다. 돈나물과 무생채, 각종 나물, 그리고 비자와 된장 찌개까지. 여기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두어 방울 떨어뜨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더없이 맛있는 보리밥이 완성됩니다.

#### 대전목재문화체험장

📍 중구 보문산공원로 442

☎ 042-254-4565

🕒 하절기(3월~9월): 09:00~18:00

동절기(10월~2월): 09:00~17:00

휴관: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각 3일(전날, 당일, 다음날), 공휴일 다음날

## 초록초록, 숲속 보물창고 열렸네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보문산 자락의 ‘사정공원’으로 갑니다. 그 역사의 깊이만큼이나 숲이 우거지고 산이 깊은데요. 산길 2차로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이곳부터 본격적으로 사정공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1, 2분 정도 더 올라가면 오른편에 또 다른 넓은 주차장과 돔 형태의 작은 식물원이 나타납니다.

알록달록 물든 가을 숲이 품은 또 하나의 숲이라니...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도, 이곳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관람객 모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띄게 차가워진 바깥 공기에 못다 누린 따스한 햇볕을 이곳에서 선물 받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나른해질 찰나에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간질이고, 습한 기운이 훅~ 온 몸을 감쌌습니다.

열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제법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높은 천장에 닿을 만큼 거대하게 우거진 야자수 나무입니다. 온실 한가운데는 물론 열대우림

을 연상케 하듯 곳곳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관심을 가진 식물은 식충식물로 알려진 ‘네펜데스’예요. “엄마 애는 기다란 주머니 안에서 끈끈한 액체가 나와. 곤충이 한 번 여기에 빠지면 나오질 못한다. 우리도 네펜데스 기르자!” 우리집 식물 박사님은 요즘 한창 파리지옥과 끈끈이주걱을 키우는 중이라, 네펜데스 앞을 한 동안 떠나질 못합니다. 이 밖에도 식물원에는 핑크빛 화려한 꽃대를 가진 화시아타와 초록색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린 바나나 나무, 키 큰 선인장, 먼지 먹는 식물 킬란드시아 등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물원답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몽글몽글 거품을 뿜으며 솟구치는 작은 분수와 심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앙증맞고요. 누가 벗어놓고 간 걸까요? 찰흙으로 빚은 구두 한 켤레와 운동화 한 켤레가 식물원 담을 타고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 사정골식물원

📍 중구 사정공원로 160

🕒 09:00~17:00

휴무: 월요일



## 사계절 내내 즐기는 인라인스케이트

실내에서 숲을 만끽했다면, 이젠 실내 스포츠를 즐기러 가볼 차례입니다. 왔던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대전의 공공체육시설 중 하나인 사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나옵니다. 1994년에 개장한 이곳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 또한 매우 착합니다. 자신의 스케이트를 가져가면 입장료만 내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제 것을 챙겨왔으니, 우리 부부만 대여소에서 장비를 대여합니다.

롤러스케이트처럼 바퀴가 있지만 한 줄로 된 것이 바로 인라인스케이트죠. 롤러스케이트를 한창 즐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참 아속합니다. 오랜만에 타는 인라인스케이트에 제 다리는 후들후들, 엉거주춤, 한발 한발 움직이고요. 아빠는 그나마 실력이 나은 편입니다. 아이는 넓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고 처음엔 살짝 긴장하는 듯 보였지만, 어느새 적응하여 뽕뽕 달리고 있고요.

스케이트장 안에는 부대시설로 휴게실과 출출한 배를 달래

기에 딱 좋은 매점이 있습니다. 네모난 은박지 그릇에 끓여 먹는 라면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그저 신이 났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고 그치는 여행지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탈 것을 마음껏 타는 그야말로 뽕한 것 말고, 편(Fun)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조심할 것은 단 하나, 다치지 않는 것.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아이도 부모도 얼마든지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습니다. 아이는 지쳤는지, 차에 타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동요도, 유튜브도 틀어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저, 오봇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물론 대화는 ‘속닥속닥’입니다.

### 사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

☎ 042-584-1919

🕒 09:00~21:00

휴무: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DAEJEON  
STORYTELLING

VOL.  
7

# 재충전은 대전이주



시설 유상구 '성북동'은 대전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한 동네는 아닙니다. 지도 대전에서 나고 자랐지만, 성북동의 존재만 알 뿐 일부러 찾아가 본 적은 없었나니까요. 집 근처만 오가며 지낸 '대전 촌놈'이 이번에는 마음먹고 생경한 동네 구경에 나서보고자 합니다. 회사에 하루 연차를 쓰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성북동으로 떠나볼 생각인데요. 시설 '여행'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거창하고요. '마실'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결으며, 이야기하며 그리고 쉬어가며 성북동에서 하루 놀아볼까 합니다.





성북동  
에코힐링  
권역

- 성북동산림욕장
- 방동저수지
- 국립대전숲체원

## ● 여행준비

이번 여행을 생각하며 가장 고민한 부분은 '자동차로 갈 것인가, 버스로 갈 것인가' 정도입니다. 다른 건 따로 준비할 것 없었고요. 물과 간식 정도만 챙겼습니다. 41번 버스가 저희 목적지인 방동저수지, 국립대전숲체원에 들러 가네요. 그런데 운행 간격이 꽤 길어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친구와 상의 하에 자동차로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성구 지족동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달리면 '가깝지만 낯선' 성북동에 도착합니다.

## 걸으며, 치유하며

“걸는데 힘든 코스는 아니지?” 등산이라면 질색하는 친구가 눈앞에 숲길이 펼쳐지자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안심시키고 산책길에 오릅니다. 대전 8경에 꼽힐 정도로 수려한 숲길임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한적합니다. 산림욕장 입구에는 관리소 역할을 겸하는 '숲속의 문고'도 있습니다. 책 한 권 빌려서 숲에서 읽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곳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지 않고 있네요. 이곳을 혼자 찾는 여행자라면, 책을 동행 삼아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불만은 많지만 재치가 있는' 친구와 함께 인지라 걷는 길이 심심치 않네요. 3Km 등산코스인 백운동은 안내판으로 구경만 하고, 저희는 가벼운 트레킹 코스인 세동마로로 향합니다. 여느 산마다 오가는 사람들이 돌 하나씩 엮어 만들어진 돌무덤들이 있지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쩐지 그냥 지나치면 서운해 친구랑 돌 하나씩 주워 올립니다.

평소에 산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푸른빛 성성한 숲에 들어서니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산을 찾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정도랄까요.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청량해지는 기분이 들어 몇 번이고 깊은 들숨을 쉬어봅니다. '카페나 가지, 산은 왜 가냐며 초입까지 투덜거리던 '투덜이' 친구도 이제야 기분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벤치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며, 잠깐 쉬어가기로 합니다. '거리두기' 탓에 친구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눈 지도 오래됐네요. 묵혀두었던 이야기거리 꺼내서 못다한 수다를 시작합니다.

산책길은 평탄한 듯 오름세가 있는 계단들도 있습니다. 의외의 복병은 계단에 쌓인 낙엽들이네요. 저는 가벼운 트레킹화를 신었는데, 친구는 운동화 차림으로 나선지

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걷습니다. 여행 준비물이 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등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트레킹화 정도는 신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꿀을 까주며 불평이 터지려고 하는 친구의 입을 막아봅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나무 군락과 청솔모,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돌무덤들이 숲길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강해지는 피톤치드 향이 느껴지네요.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껏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떠밀려오듯 함께 온 친구도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라고 총평을 하네요. 쉬는 날이면 코로나 핑계로 집 안에서 리모콘 끼고 뒹굴거리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가벼운 숲길 트레킹을 시도해보야겠습니다.

### 성북동산림욕장

📍 유성구 성북로 463

☎ 042-825-3807

🕒 09:00~24:00, 연중무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적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반려동물과 동행 시 목줄을 채우고, 배변봉투를 지참



## 잔잔한 물결, 위로를 건네다

이미 하루치를 다 걸었다는 친구를 차에 태우고, 방동저수지로 향합니다. 방동저수지도 수변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제빵소’라는 빵집을 목적지로 두고 출발합니다. 오늘 저의 여행메이트가 좀 까다로운 캐릭터인 탓에 ‘저수지 가자’보다는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꼬드기는 편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빵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당과 카페인을 채우기 위해 ‘오늘 제빵소’로 들어가 봅니다. 산림욕장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와있나 봅니다. 평일인데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꽤 많네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핫플’이라는 건 알았지만, 북적대는 인파가 놀랍습니다. 빵집이지만 커피와 차도 여러 종류네요. 친구랑 저는 라떼 한 잔씩과 단호박쉬폰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 야외테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파이, 샌드위치, 케이크 등 종류가 많아 고르는데 애를 먹었네요. 이곳에서 에너지

를 충전해서 근처 산책길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찬찬히 둘러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네요. 맛도 좋지만 숲과 저수지를 에두르고 있는 전망이 음식 맛을 더해줍니다. 야외 공간에는 가마솥과 장독이 자리하고 있고, 밤에는 장작불도 태우는 모양입니다. 늦은 저녁시간에 찾는다면 ‘불멍’도 할 수 있겠는 걸요. 조경이나 야외 공간도 멋져서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제 옆에는 ‘여사친’인 게 좀 아쉽네요.

다리에 맺힌 피곤함이 사라질 때쯤, 가게 옆으로 조성해 놓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기로 합니다. 친절하게 표지판으로 ‘산책로’라고 안내까지 해주셨네요. 방동저수지 길이는 187m 정도 됩니다. 걷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지요. 이곳은 대전시 카누 선수들의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수지 한편으로 선수들의 카누가 켜켜이 올려져 있네요. 찌를 바라보며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들의 모습도 하나둘 보입니다. 숲길과는 또 다른 ‘물길’이 주는 ‘힐



링’이 있네요. 요란함 없이 잔잔한 저수지 풍경이 평온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던 낮선 풍경들이 신선한 자극이 되는군요. 차로 30분이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니, 역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시 빵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줄 빵들을 몇 가지 챙겨서 다음 일정을 향해 움직여봅니다. 오후에 또 걷기 위해서 배를 좀 채워야겠습니다. ‘빵 배’와 ‘밥 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방동저수지  
 ● 유성구 방동

## 성북동 힐링 숲길 클라이맥스

성북동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국립대전숲체원(이하 숲체원)입니다. 산림욕장에서 2Km 남짓,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서면 2019년 10월에 문을 연 숲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41번 버스 종점이기도 하지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의 날’에 맞춰 개원한 숲체원은 문 열자마자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여름에는 방역수칙에 맞춰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아쉬움을 덜게 됐네요.

숲체원에 들어서면 감각적인 건물 경관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게 나지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찾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줍니다. 사실 숲 한 가운데 콘크리트 건물이 삐죽 솟아있으면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곳은 나무로 꾸며진 외관에서부터 이미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입구에 자리한 안내센터부터 대강당 등 비슷한 모양새의 건물들이 어깨를 두른 듯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숲체원은 빈계산과 금수봉의 산길 따라, 다섯 개의 숲길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행을 나서기 전, 인터넷에서 미리 확인해두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저희는 ‘골짜기 숲길’을 선택했습니다. 골짜기 숲길은 930m 거리에 난이도는 하급 코스입니다. 숲체원 안내도에 코스와 난이도, 거리 등이 표시돼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숲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무 막대기로 바닥을 톡톡톡 두드리면 뱀이 도망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나무통에서 막대기 하나 수호신처럼 들고 출발해봅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나무로 된 구름다리가 눈에 띄네요. 전국 숲체원 중 유일하게 장애물이 없는 데크 산책길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도 힘들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노약자분들도 무리 없이 나들이 장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는 숙박동도 보이고, '나래마을'이라는 개별숙박동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숲속에서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다음 기회에는 1박 2일 일정을 도모해보아겠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취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는 '채움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책로 이곳저곳에 아기자기한 조형물들도 많아 아이들과 찾기도 좋아 보이네요.

“오랜만에 흠길 밟으니 좋네” 친구의 말에 고개를 한껏 끄덕여줍니다. 숲길에는 나무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 식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



엽길을 따라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며 1시간여 숲길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된 숲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네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전에, 어서어서 이 한적함을 누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꼭 체크해서 이용해보시고요. 친구랑 저는 다음 번 연차에 한 번 더 성북동을 찾기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  
 📍 유성구 숲체원로 124  
 ☎ 042-718-1501  
 🕒 운영시간 따로 없으나  
 18시 이후 프로그램 이용 불가

DAEJEON  
STORYTELLING

VOL.  
8

# 우리끼리 드라이브는 대전이주



모처럼의 데이트입니다. 전순이 집들이 카풀이 큰맘 먹고 드라이브에 나섭니다. 쪽빛 하늘과 호수, 발그레 물든 숲에서 호젓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드라이브 맛집은 따로 있기 마련이죠. 200km의 대청호오백리길(둘레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로는 어디서든 장관입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몸살을 앓기 시작할 때도 이 길의 벚꽃터널이 아쉬움을 달래주었는데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아트마한 가을 산과 수목 사이를 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개의 구간마다 특별한 제미가 있다니, 오늘은 어디쯤 내려 갈까요?





## 대청호 드라이브 권역

- 대청로하스길(21구간)
- 대청댐
- 대청댐물문화관
- 두메마을길(1구간), 두메마을
- 대청호반길(4구간), 슬픈연가 촬영지
- 식당산



### 여행준비

도시락과 돛자리를 챙깁니다. ‘가을 소풍 드라이브’가 오늘의 테마이거든요. 그 유명한 돌레길도 안 걸어볼 수는 없죠. 선글라스와 마스크, 운동화도 준비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금강로하스대청공원]을 찍었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오늘은 대청호의 ‘대전 구간’을 달려보려고 해요. 대청호는 대전시 동구·대덕구, 충북의 청원·옥천·보은군에 걸쳐 조성된 인공호수인데요. 저수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이기도 해요. 50만 대전시민과 35만 세종시민 등 중부권에 공급되는 식수·용수가 이 호수에서 나온다니 발원지를 찾아 나서는 기분도 드네요.



### 대전과 청주를 합쳐 대청(大淸)?

“대전과 청주 사이에 있어서 대청호라는 데 맞아?” 운전대를 잡은 제게 남친이 묻습니다. 위치나 이름이 꽤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땡!’입니다. 1970년대 대청다목적댐을 지을 당시 행정구역이었던 대덕군(대전)과 청원군(충북)의 앞글자를 따 대청호(大淸湖)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대전과 청주는 대청호의 입지 결정을 좌우한 키맨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지도에서 대청댐이 자리 잡은 금강유역을 보면 긴 병의목처럼 생긴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댐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적지였던 셈이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금강유역은 한해 강수량 중 3분의 2가 여름철 두 달 동안 집중

호우로 쏟아져 내리는데요. 다른 세 계절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기 십상입니다. 인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과 청주이죠. 댐 건설 당시 통수로 건설 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도, 두 대도시와의 인접성이 입지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청댐은 지난 40여년 간 중부지역의 1등 일꾼으로 활약했는데요. 4인을 1가구로 했을 때, 약 3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9만kWh를 생산할 수 있고, 연간 13억m³에 달하는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산과 바다, 그리고 땅과 호수. 우리가 언젠가 회귀하는 자연이 결국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지요.



## 대청호 예술가들이 1등으로 꼽는 아침 안개

바다 없는 내륙도시인 대전과 충북에서 대청호는 두말 필요없는 '내륙의 바다'입니다. 물가로 이끌리는 강렬한 본능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가끔 신기한 일이지요. 물가에 서는 뭍 먹어도 맛있고, 무엇을 보아도 좋습니다.

대청호와 맞닿은 동네는 대전 2개 구, 충북 4개 군, 2개 읍, 11면에 달합니다. 대전·충북 어디에서나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총 21개의 구간 중 1~5구간, 21구간이 대전에 속합니다. 1구간에는 대청댐물문화관, 2구간에는 이현동 억새밭과 찬샘마을, 3구간에는 관동묘려와 미륵원, 4구간에는 드라마 슬픈연가 촬영지, 5구간에는 백골산성, 21구간에는 대청로하스길이 대표적인 볼거리로 꼽힙니다. 1구간의 산책로와 2~4구간의 드라이브, 21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여행의 참맛을 더하는데요. 라이더와 걷기족이 앞다퉈 엄지를 치켜세울만 합니다.

우리는 21구간(대청로하스길)으로 향합니다. 대청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원피크닉을 즐긴 다음, 아침의 물안개가 일품이라는 수변 데크(해피로드)를 따라 걸어 볼 예정이에요. 대청공원은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규모(6만㎡)의 넓은 잔디광장인데요. 대청호와 금강을 모두 접하고 있고, 강변을 따라 설치된 470m의 해피로드에서는 간혹 백로가 먹이를 찾아 비상하는 장면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친과 함께 보고 싶은 장소가 있었는데요. 대청공원에 있는 대청문화전시관을 등지고 20분 정도 해피로드를 걸으니, 물속에 반쯤 잠긴 왕 버드나무 군락지가 안개와 함께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심에서 대청호로 이사 온 예술가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대청호에서 단연 1등으로 꼽는 풍경이기도 해요. 남친은 <반지의 제왕> 속 세트장 같다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대청로하스길(21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84-2

## 대청댐 뷰가 가장 좋은 곳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대청댐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청공원과도 지척이지요. 운이 좋으면 폭포처럼 쏟아내는 방류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댐 뷰가 가장 좋은 곳은 대청교예요. 수문을 마주하는 대청교 교각 위에서는 총 6개의 수문을 정확히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수문의 조명이 켜지면서 흔치 않은 야경을 선물하죠. 오늘 운이 좋았나요? 2020년 여름 긴 장마 기간 동안 대청댐이 8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고 하는데요. 강수량이 줄어버린 가을이라 아쉽게도 시원한 방류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댐 뷰가 좋은 곳으로는 현암사 길목의 나무데크전망대, 오가삼거리 나무데크길 등이 있으니 기분대로 골라가면 좋습니다.



대청댐 본댐이 위치한 곳은 대전 대덕구 미호동(羨湖洞)인데요. 미호동의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휘감아 도는 금강의 모습이 호수 같고 매우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동네가 생긴 것이 대청댐보다 먼저였으니, 마치 댐과 인공호수가 생길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죠?

대청댐

📍 대덕구 미호동

## 철갑상어부터 수물민 이야기까지

“대청호에 상어가 있다고?” 대청호 하류에 철갑상어가 살고 있다고 하니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직접 보여주기 위해 물문화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문화관은 원래 있었던 대청댐 물홍보관을 증축하면서 2004년 7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제1전시관, 대청호와 금강에 사는 생물의 서식환경을 소개하는 제2전시관, 대청댐 건설로



사라진 수몰민의 삶을 기록한 제3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대청댐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제1전시관에서는 체험 전시가 마련돼 있는데요. 체내 수분량 측정기나 대기오염물질을 잡는 게임이 의외의 즐거움을 줍니다. 제2전시관의 수족관에는 실제 대청호와 금강에 살고 있는 생물을 볼 수 있어요.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16종의 민물고기 사이에서 철갑상어를 발견한 남친이 호들갑을 떨니다. 강물과 바다를 오가며 서식

하는 종이라는 건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서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강 하구에 분포돼 있다고 해요.

수몰민 이야기로 채워진 제3전시관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대청댐 건설로 큰 효과를 얻었지만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 지역의 연간 안개 일수가 늘어난 데다 가뭄이 지속되면 호수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엇보다 4,075세대 2만 6,000명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만 했지요. 댐 준공을 앞두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인근 도시와 전국으로 옮겨갔는데요. 이주민들은 호숫가에서 사라진 고향땅을 그리워하거나, 호수 한가운데 섬이 돼버린 산봉우리로 배를 타고 성묘를 가는 낯선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향민은 그리워할 고향이라도 있지’라는 수몰민의 회한은 좀처럼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리움을 남몰래 달래고 있을 마음 언저리가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 대청댐물문화관

📍 대덕구 대청로 618-136

☎ 042-930-7332~3

🕒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명절

#### 두메마을과 도자기 공방

벌써 정오네요. 오후에는 두메마을 ‘도자기 공방’에 도예 체험을 예약해둔 터라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대청댐에서 두메마을 가는 길(1구간 두메마을길)은 봄철 긴 벚꽃 터널로도 유명하죠. 가을녘 그윽한 낙엽길은 그만의 운치가 있습니다. 봄이 낭만길이라면 가을에는 분명 ‘서정적인 길’일 거라고 표현해주죠. 또다시 물에 이끌리듯 발그레한 수목 사이를 내달립니다.

두메마을은 대전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자, 매년 가을 호박축제로도 유명한 마을이지요. 도자기 공방 간판

이 없었다면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느 관광지들과 다른 대청호의 매력 중 하나예요. 손꼽히는 관광지 모두 고요하면서 힘있게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죠. 두메마을도 초입만 지나치면 유쾌한 풍경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망졸망 시골집들과 함께 펼쳐진 황금 눈에 눈길의 선해지고요. 거대한 호박과 물고기 조형물도 시선을 끄는데요. 예술가들이 하나둘 대청호에 터를 잡으면서 생긴 변화이기도 해요. 매년 호박축제를 여는 늪지 쪽으로는 주렁주렁 박이 매달린 터널도 세워 놓았어요.

‘그림 같은 집’. 대청댐 근처 도자기 공방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도자기 체험을 하는 공방, 예술가 부부의 작품을 전시해둔 카페, 도자기를 말리고 굽는 가마터까지 모두 예술가 부부의 두 손으로 지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청호에 서식하는 감돌고기 모양의 풍경을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직접 반죽을 빚거나 물레를 돌려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색을 칠해보는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채색





을 하고 있으면 아뜰리에 대표님이 넌지시 말을 걸어오는데요. 색으로 드러나는 심상을 읽어주는 말씨가 가을 햇살처럼 따스합니다.

채색을 마친 풍경은 이곳에서 몇 차례 공정을 거치는데요. 잘 말리고 덧발라 구워져 완성된 풍경은 택배로 부쳐주신다고 합니다. 풍경을 채색하고 풍경 안에 들어가는 악세서리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똑딱똑딱 잘하는 남친과 달리 초반에 어떤 색을 칠할 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대표님의 도움으로 제 풍경도 마음에 쏙 들게 완성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오늘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슷한 풍경들이 달려있는데요. 공정여행으로 두메마을을 방문한 이들과 이곳 주민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하늘강 도자기 체험 - 18가지 반찬의 소쿠리 밥상 - 가마솥 군불때기 - 제철 음식만들기(썩개떡, 두부 등)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다음번으로 예약하면서 마을을 나섭니다.

두메마을길(1구간), 두메마을

📍 대덕구 이현동 187

☎ 010-9116-2705



## 해변이야 호반이야?

슬픈연가, 트루픽션, 7년의 밤, 창궐. 이들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은? 대청호가 꼭 한 번은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이중 슬픈연가 촬영지는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영화 촬영지’라는 간판만 덩그러니 붙은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앞서 대청호가 내륙도시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바다라는 표현을 했죠. 슬픈연가 촬영지에서는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인공호수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 덕에 하얀 모래사장 끝에서 호반의 물이 손끝에 닿습니다. 어떤 각도로 바라봐도 모두 그림이 되고 말죠. 전국 곳곳을 두지며 아름다운 로케이션 헌팅을 다니는 영상인의 안목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차를 대놓고 걸어 들어가는 1km 남짓의 역사풀 숲은 비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외딴 벤치, 사연이라도 품은 듯 물 밖으로 나온 조각배, 이제는 막혀버린 우물까지. 마치 모든 것이 연출된 듯 마음이 간지럽습니다. 슬픈연가 촬영지가 사랑받으면서 그 옆으로 명상정원, 물속마을 정원을 조성해 더 많은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청호반길(4구간), 슬픈연가 촬영지

📍 동구 마산동 483번지

## 쇼핑과 야경으로 마무리 데이트

대청호를 하루에 정복하겠다는 건 욕심이죠. 호반을 뒤로하면서 대청호 여행 로드맵을 세웁니다. “21구간을 3구간씩 나눠서 9번을 와보자”는 게 우리 커플의 결론. 오늘 데이트는 야경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장산 야경은 대전 토박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부산서 나고 자란 남친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산길을 힘겹게 오르지 않아도 대전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덕에, 인스턴트식 해돋이 단골 장소가 되기도 했죠. 내비게이션에도 [식장산 해돋이] [식장산 해돋이전망대]를 검색하면 빠릅니다.

식장산(食藏山)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삼국시대 국경의 요충지로, 백제 군사들이 군량미를 저장하고 싸움을 했다는 전설이 그중 하나이고요. 그 옛날 이 산에는 가난하고 착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한 줌 쌀이 몇 배로 불어나는 식기가 묻혀 있어 식장산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 남짓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며 나누기 좋은 이야기이죠? 정상에 이르면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웅기종기 커플들이 모여있네요. 한눈에 담는 도시의 밤이 불꽃놀이라도 하듯 반짝거립니다.

식장산

📍 동구 대성동



DAEJEON  
STORYTELLING

VOL.  
9

#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전이주



여행은 늘 좋지만, '편식'하다 보면 지겨워지기도 하지요. 제이무리 좋은 꽃구경이라도 늘 그것만 보면 감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여행은 편식했던 여행 주제를 바꿔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가을이면 단풍 보고, 봄 되면 꽃 보러 가이저하는 '뻔한' 여행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유할 수 있는, 전경을 보다는 느린 걸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대덕  
선비문화  
권역

- 회덕향교
- 쌍청당
- 동춘당
- 계족산 황톳길, 계족산성
- 계족산성

## 여행준비

계족산 인근에 자리한 선비문화가 담겨있는 유적지를 돌아본 뒤, 계족산 황톳길 산행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황톳길은 맨발로 걸을 계획이기에 여분의 양말과 수건 등을 챙겼습니다. 산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김밥 두 줄과 물, 초코바 몇 개도 배낭에 아무지게 넣었고요. 시간이 맞는다면 계족산성에 올라, 야경까지 보고 올 생각이어서 가벼운 랜턴과 추위를 막아줄 바람막이 아우터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 조선시대 '열공'의 공간

뒤로는 계족산, 앞으로는 보문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터에 회덕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입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했을 젊은 학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회덕향교가 명소인 이유는 조선시대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이 수학했던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 작은 공부터에서 걸출한 학자가 두 명이나 배출되다니, '터'가 좋은 것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요. 두 명산에서 전해지는 청량한 기운에 저까지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니 말입니다.

회덕향교 입구는 외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3개의 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드나들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가운데 문은 신이 드나드는 곳이라 사람들의 출입은 금해졌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입덕문'이라 불리는 이 대문은 학문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경계로 설명됩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문이기도 하지요. 입덕문 옆으로는 요즘 기숙사에 해당하는 고직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직사를 지나면 비로소 명륜당이 보입니다. 옛 선비들의 치열했던 수학의 공간은 소박해 보이지만, 힘이 느껴지네요. 현재까지 다양한 유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명륜당을 지나 10단의 계단을 오르면 내삼문이 나오고, 그 문 안쪽으로는 제사를 지내던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포함해 중국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위패를 모셔 놓은 곳입니다.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강학만



대덕 선비문화 권역

하는 것이 아니라, 제(祭)를 통해 성현들의 인격까지 닮아가고자 한 선비들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 기운을 받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 회덕향교

- 대덕구 회덕동 대전로1397번안길 126
- 042-628-2021

## 화려한 단청이 깃든, 조선시대 별당

회덕향교에서 차로 10분쯤 도심 방향으로 내려오면, 대전유형문화재 제2호 쌍청당에 도착합니다. 쌍청당은 조선시대 유학자인 송유의 별당입니다.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아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쌍청당은 '청풍과 명월의 기상을 가슴에 새긴다'라는 의미로 박팽년이 붙여준 별당 이름이라고 하네요. 박팽년은 잘 알다시피 사육신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쌍청당은 아직 후손들이 거주하고 계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쌍청당 안으로 들어서서 정면과 좌측은 방문이 조

심스럽지만, 우측 길로는 누구나 거닐어볼 수 있습니다. 대문 하나 통과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다른 세상에 온 듯, 공기의 기운마저 낯설어지는 듯합니다. 아담한 우물을 지나면 봉우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보입니다. 가을 단풍이 깃든 이곳은 고화(古畵) 속 한 장면마냥 감동을 줍니다.

쌍청당에서 대학생 방문객 한 팀을 만났습니다. 사진도 찍고,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반가워 인사를 건넵니다. 인근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이 젊은 선생님들로부터 쌍청당에서 단청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청은 목조건물에 화려하게 색을 입힌 양식을 말하지요. 민가에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게 특이하다고 생각되긴 했는데, 고려시대 건축양식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 까닭에서라고 하네요. 세종 11년 단청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단청과 같은 화려한 기법들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절제를 미덕으로 삼던, 유교적 가르침의 영향이었겠지요. ‘하늘 아래 스승 아닌 것이 없다’ 하더니 우연히 만난 인연들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들을 만

나지 못했다면, 그저 별당 뒷마루에서 별이나 찌다 왔을 텐데 말이지요.

#### 쌍청당

📍 대덕구 중리동

★ 후손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정숙하게 관람해야 한다.

#### 절제와 검소의 미학

쌍청당에서 동춘당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지척입니다. 동춘당은 조선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 이 살았던 집입니다. 동춘당은 ‘살아 움직이는 봄과 같아라’라는 뜻으로 송준길의 호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낮은 담장을 지나서 대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현판은 송준길 사후 우암 송시열이 썼다고 합니다. 생전에 양송(兩宋)이라 불리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던 이의 마지막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쌍청당은 고려의 건축기법으로 지어져 단청과 같은 화려한 기교가 입혀진 반면, 동춘당은 절제의 미학이 그대



로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이름을 날린 양반이지만, 별다른 꾸밈없이 수수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일자 모양의 사랑채가 보입니다. 동춘당은 나지막한 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이 구조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양반가 사람들이 높은 단위에 서서 ‘네 이놈~’하며 호령하던데,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네요.

동춘당은 여느 옛 여염집과는 달리 굴뚝을 따로 달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초석 높이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불을 지피는 것조차 눈치를 살핀 것일까요. 백성들과의 눈높이를 유지하고, 검소하고 낮은 자세로 살기 위해 노력한 유학자들의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당으로 쓰인 동춘당 뒤편으로 종택이 있습니다. 직접 살림을 하며 지내던 곳으로 사랑채, 안채, 사당, 부엌, 행랑방 등이 ‘디귤’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네요. 내가 걷고, 만지는 이 길과 돌담이 수 세기를 넘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 한 칸을 찡하게 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쌓여 역사가 되었듯, 저도 제 나름의 일상을 충실하

게 지내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네요. 켜켜이 쌓인 시간이 건네는 위로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을 묵묵히 지내온 고택이 주는 ‘힐링’인 듯싶네요.

#### 동춘당

📍 대덕구 동춘당로 80

☎ 042-608-6114

🕒 08:00~17:00

#### 맨발로 느끼는, 흙 에너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 본 사람은 없다’는 계곡산 황톳길. 저는 전자에 속하는 ‘안 가본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녀온 뒤, 열심히 추천해준 덕에 ‘한 번 가봐야지’라는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네요. 여러 번 다녀온 지인이 황톳길을 거쳐 계곡산성까지 가려면 ‘장동산림욕장’ 주차장으로 가라고 알려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주말에는 차가 넘쳐 길가까지 행렬이 이어진다는데 다행히 평일이라서인지 주차공간도 넉넉합니다.





입구에서 오늘 걸어야 할 길들을 체크하고 본격적인 산행에 나섭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지나치기 힘든 군것질거리들이 나타납니다. '계족산도 식후경'이지요. 집에서 챙겨온 김밥과 함께 먹을 커피 한 잔과 구운 계란을 사서 챙깁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벤치에 앉아 허기진 배를 채워봅니다. '혼밥' 하는 등산객이 쓸쓸해 보이는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 이 자주 날아와 꽃히네요. 관심을 즐기는 편이 아닌지라, 서둘러 옥여넣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식사를 챙겨오지 않아도 간단한 요기 거리들은 판매되고 있으니 이곳에서 배를 채우고 등산을 시작하셔도 좋겠네요.

“혼자 오셨는가?” 할아버지 한 분이 굴 하나를 건네십니다. 그러고는 저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시네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씩 건네주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납니다. 혼자 걸어도 심심치 않은 건, 이런 ‘동행인 듯 동행 아닌’ 분들을 만나기 때문인 듯합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황톳길이 보이네요. 가방에 신발과 양말을 집어넣고 서둘러 한 발짝 떼봅니다. 이야기로만 전

해 들었던 황톳길에 저도 첫발을 디디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첫 느낌은 ‘서늘하다’ ‘낮설다’일 것 같네요. 늦가을에 접어든 탓인지 황톳길에서도 역시 차가운 기운이 전해집니다. 황토는 웬지 언제나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역시 뭐든 경험해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참으며, 그리고 맨발로 걸어본 적은 처음인 듯 생경한 기분을 느끼며 황톳길 걷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자연과 더불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했건만, 완벽한 맨발 상태로 길을 걸어본 건 아마도 처음이지 싶네요.

이질적인 발바닥 느낌을 견뎌가며 걷다 보니, 이제 바닥을 속속 비비고 걷는 여유도 생깁니다. 중간 중간에 세족장이 있어서 가다가 힘들면 발을 씻고 등산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노랑게 익어가는 단풍도 보고, 포토존으로 꾸며놓은 곳에서 셀카도 찍으며 맨발 산행을 즐겨 봅니다. 가다 보면 제법 큰 놀이터도 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황톳길, 놀이터 코스로 찾아도 가족 여행으로 좋을 듯합니다.

황톳길을 벗어나 계족산성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끝도 안 보이는 계단이 저를 맞아주네요. ‘실수했다’ 싶지만 어찌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상, 가야지요.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고통을 견디고, 또다시 오르막길을 헤치고 오르다 보면 먼 시야에 계족산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성까지 오르려면 한참을 더 올라야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풍경에 감탄할 여유도 생기고요.

계족산성은 백제시대 만들어진 석축산성입니다. 넓적넓적한 돌들을 쌓아 올려 두께 4미터, 높이 7~10미터, 길이는 1킬로미터에 달하는 구조물을 만든 거지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을 텐데, 얼마나 고단한 노력

이 이곳에 녹아있을지 짐작도 안 갈 정도입니다. 고작 계단 몇 개 올라오면서 온갖 곡소리를 한 게 민망해지네요. 장엄한 규모의 계족산성을 한 바퀴 돌며, 발아래 펼쳐진 경관을 눈에 담아 봅니다. ‘이 맛에 산에 오지’를 몇 번이나 되뇌면서 말이죠.

#### 계족산 황톳길

📍 대덕구 장동 산91

#### 달빛 품은 산성에서

오후 느지막한 시간에 산에 오른 건 다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계족산성에서 보는 야경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힘들게 오른 산인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요. 오후 5시를 넘어가니 제법 찬바람이 파고들어서 바람막이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경량패딩을 준비해온 분도 보였는데, 그분이 조금 부럽더군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춥습니다.



운이 좋게 날이 참 좋아서, 노을이 너무 멋집니다. 깨끗한 시야로 선명하게 노을을 바라보는 게 얼마 만인가 싶네요. 도시를 삼킬 듯 붉게 물들어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갔지만, 그 여운이 길게 남을 듯합니다. 해가 넘어간 후에는 쪽빛 하늘의 시간입니다. 캄캄한 밤보다는 해는 졌지만, 그 여운이 남아있는 쪽빛 밤하늘이 참 좋습니다. 이 시간도 길지 않아,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죠. 사진가인 친구가 ‘이때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고 한 말이 생각나 야경 사진 몇 장 남겨봅니다. 전문가는 아닌지라, 사실 저는 별차이는 모르겠네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보다 제 눈에 담긴 모습이 더 멋진 듯합니다. 오돌오돌 떨어서도 이 순간과 작별하기 아쉬워 버터보다 산 아래로 향합니다. 랜턴을 준비해 오길 잘했네요. 야경까지 보려면, 랜턴과 방한용품 꼭 챙겨야 할 듯합니다. 고된 산행이긴 했지만, 그 이상의 추억을 간직하게 해준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 계족산성

📍 동구 효평동

☎ 042-608-5571

DAEJEON  
STORYTELLING



VOL.  
10

# 가족과 함께 대전이주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가을 초입, 제법 서늘해진 바람이 코끝을 스칩니다. 파란 물이 후두둑 떨어질 듯한 하늘에는 군데군데 조각구름이 떠다니고요. 찬란한 가을별이 온몸에 스며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늘 그래 왔듯이 아름다운 이 계절은 빨리 지나가나가요. 목직지는 생각보다 쉽게 정해졌습니다. 마음의 결을 짚어내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자연이 숨 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 우리의 소중한 가을 소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태산  
오월드 1박 2일  
권역

- 장태산 자연휴양림
- 노루벌 캠핑장
- 오월드(O! WORLD!)

## 여행준비

밤부터 시작된 짐 싸기는 여행 당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일정이라 간단한 세면도구부터 시작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캠핑용품들, 그리고 야외활동에 필수인 모자와 선크림,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를 생각해 가족들의 겉옷까지...트렁크는 이미 세 가족의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 아이는 곤충채집통과 잠자리채까지 챙겼네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운동화를 맞춰 신고 집을 나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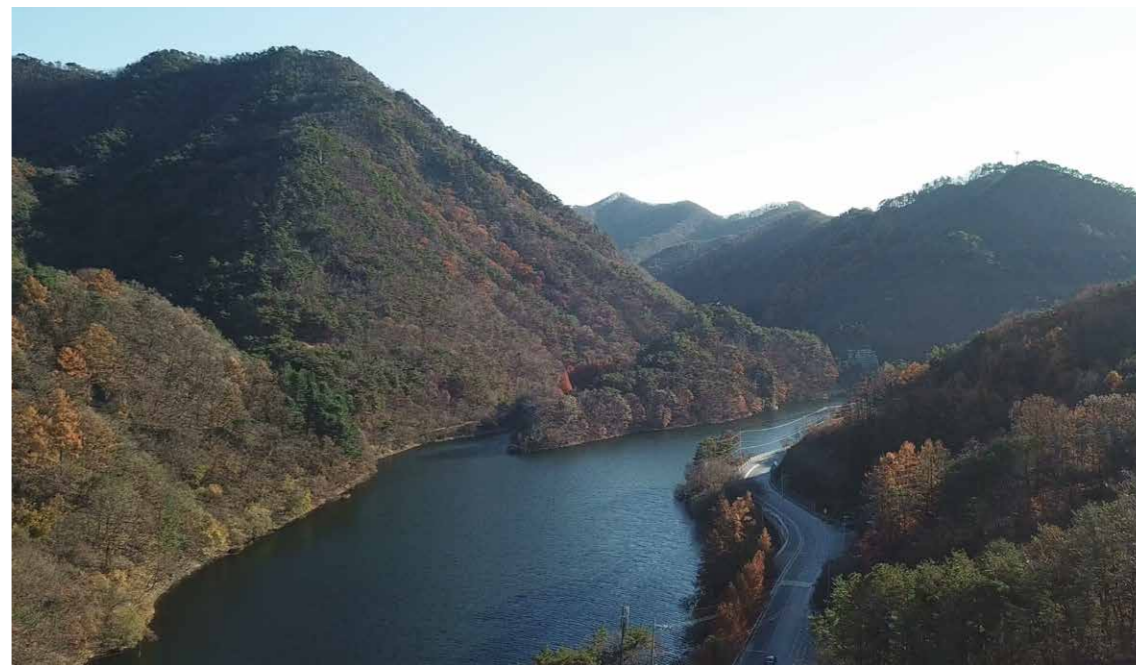
## 고속도로 타고 광주에서 대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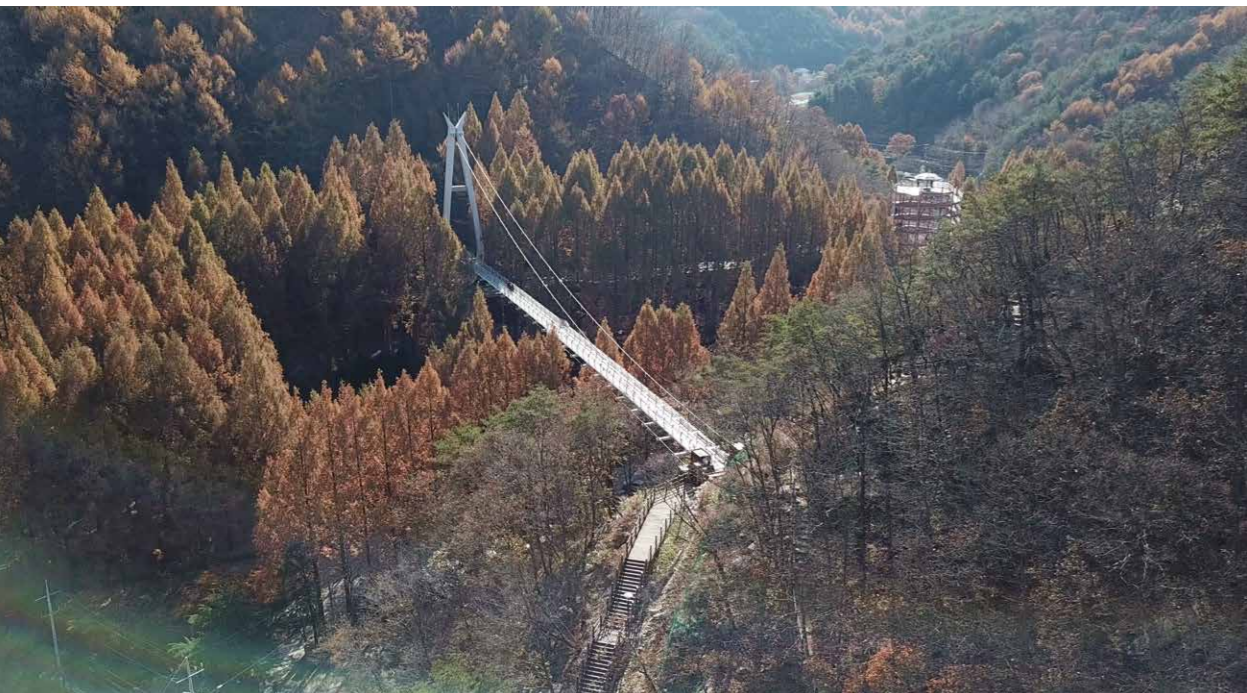
가깝든 멀든, 여행의 시작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면서 시작됩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소한 커피 향에 마음도 덩달아 두둥실 떠오르네요. 어느새 차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멋지다는 장태산자연휴양림과 1박 캠핑을 하게 될 갑천 노루벌, 그리고 아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오월드입니다. 광주에서 대전은 2시간 거리. 이 코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면 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리고 달려 양촌하이패스 IC를 지나 드디어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흑석네거리에서 장태산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대전 도심을 맛보기도 전에 정겨운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조금씩 느려지는 속도. 차창을 내리고 만져보는 상쾌한 바람.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배시시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 음이온 풍풍 메타세쿼이아 숲길 따라

아침 일찍 출발한 탓에 오전 10시가 채 안 되어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길쭉길쭉한 자태를 뽐내는 메타세쿼이아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입구에 우두커니 선 버스정류장. 이내 파란색 시내버스가 한 대가 멈춰 서더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셋이 내립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길동무가 되어 숲으로 향합니다.

휴양림 입구에 진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동상이 하나 눈에 띄니다. 장태산 휴양림을 1991년 전국 최초 민간 휴양림으로 만든 송파 임창봉 선생의 흉상입니다. 지난 2002년에 대전광역시시가 인수해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평일이라 한적하니 여유가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공원수,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나무라 그리 낯설지 않은데요. 늦가을에 만나는 메타세쿼이아 숲은 더욱 이국적인 모습을 뽐냅니다. 30m를 훌쩍 넘는 키다리들이다 보니 머리 위로 온통 붉은 세상이네요.





구름다리를 건너자 '만남의 숲'이 나옵니다. 앞새와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벤치에 내려앉습니다. '하~' 하고 숨을 내쉬 다음 다시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지금까지 호흡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훨씬 많은 양의 공기를요. 엄마 옆에서 귀여운 3살 꼬맹이도 똑같이 따라 하네요. '음~ 하~' 상큼한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흡수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벌써 취해서는 안 되죠.

온통 나무들뿐인 것 같은 숲속에 알록달록 색감을 뽐내는 놀이터가 반깁니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곳이죠. 놀이터 옆 나무 평상에 돛자리를 펴고, 과일 꾸러미를 펼쳐놓습니다. 숲속 유치원이 이런 느낌일까요? 남편과 담소를 주고받으며, 뛰어노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여기 오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 옆에는 생태연못이 조성되어 있어요. 수면 위

로 떨어진 낙엽과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연못에 놓인 데크길을 따라가면 메타세쿼이아 산림욕장과 장태산휴양림전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의 일생부터 휴양림의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의 하이라이트! 숲속어드벤처로 떠나볼까요? 살짝 경사진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자 스카이웨이 입구가 보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만들어놓은 자연 조형물처럼,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10~16m입니다. 메타세쿼이아의 허리쯤 되겠네요. 시원한 바람과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절로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무서워할 줄 알았던 꼬맹이도 하늘길이 신기한가 봅니다. 아래서는 보지 못했던 나뭇잎과 기둥의 초록 이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요. "엄마

이것 봐!"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장태산 캐릭터인 이끼도롱뇽 커플 그림. 스카이웨이에 전시된 갖가지 이야기거리를 벗 삼아 걸어갑니다.

스카이웨이의 끝에 다다르면 전망대인 스카이다워를 마주하게 됩니다. 셋이서 손을 꼭 잡고 전진! 빙글빙글 돌며 올라가는 나선형의 데크길은 놀이기구만큼이나 아찔합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아침에 입고 나온 긴 소매 겹옷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전망대에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과 벤치가 놓여있습니다. 타워 높이는 27m로 메타세쿼이아와 키가 비슷합니다. 이제야 눈높이가 맞네요. '너는 줄곧 이런 풍경을 보고 있었구나?' 뻥뻥이 들어선 메타세쿼이아 군락은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은 새롭다 못해 환상적이고요.

타워를 내려와 2019년 12월에 개통한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스카이웨이에서 맞은편 등산로와 연결되는 이 다리는 길이 140m로, 이편에서 저편으로 빨려들어 갈 듯 흡입력이 굉장합니다. 힘들게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니! 휴양림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출렁다리 뒤로는 새롭게 조성된 둘레

길이 있습니다. 나무계단과 바윗길이 반복되는 가파른 길이라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등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코스일 듯합니다. 하지만 등반시간이 15분 안팎이라 하니 한 번쯤 도전해볼 만 합니다.

발길을 돌려 주차장으로 가는 길. 키 큰 나무들을 올려다 보느라 미처보지 못했던 물봉선화와 고들빼기꽃 등 아가자기한 식물들에 시선이 머물립니다. 겨울과 봄, 여름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피고 지고 하겠지요?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참 좋았었지!' 하면서요.

#### 장태산 자연휴양림

📍 서구 장안로 461

☎ 042-270-7883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둘러 갑천을 따라 대둔산 쪽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베이스캠프는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 대전에서 유일한 무료 캠핑장으





로, 개수대가 없고 재래식 화장실만이 있는 전형적인 노지형 캠핑 장소입니다. 때문에 필히 챙겨야 할 것이 ‘물’과 쓰레기봉투, 그리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차량이 한 대 두 대 캠핑장 안으로 들어오네요. 한 집 두 집 모여 마을을 이루듯, 어느새 각양각색의 캠핑족들로 한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평평한 곳에 텐트를 치고 짐을 풀어놓습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흐르는 강물을 따라 산책을 나서볼까요. 꼬맹이는 풍당풍당, 작은 조약돌을 주워 던지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까르륵 웃습니다. 저 멀리서 홀로 낚시를 즐기는 아저씨가 보이네요. 의자에 앉아 한껏 여유를 즐기는 젊은 청년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캠핑을 온 학생들과 우리처럼 아이와 함께 온 가족 캠핑족도 더러 보입니다.

곧 맞은편으로 연결된 작은 다리를 건너갑니다. 산책길은 흑석유원지와 구봉정, 두 갈래로 나뉘집니다. 모두 위

쪽에서 만나는 구조인데요. 욕심내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썩 거닐어볼까 해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니 생태놀이터가 나타납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이 특별한 구조의 놀이터는 정답이 있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인 듯해요. 여러 기둥에 열기설기 얹힌 그물에서는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질 텐데요. 아이의 손과 발이 여기저기를 헤매면서도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생태놀이터 바로 옆에는 나무 기둥을 겹겹이 쌓아 올린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곳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반딧불이 3종 모두가 출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낮에 반딧불이를 찾기란 쉽지 않죠. 다만 아이와 함께 서식지에 대한 이해와 그림으로 표현된 반딧불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반딧불이는 다슬기를 먹고 산다고 해요. 대전시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잘 보존하기 위해 다슬기를 갑천에 방류하였다고 합니다.

생태놀이터 옆쪽으로는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용천연고판목’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보이네요. 여기서 ‘판목’은 쉽게 말하면 팔만대장경과 같이 나무에 글을 새겨 넣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용천연고판목에는 훈례 예레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어서 현재는 대전시 문화공보부에 보관 중이라네요. 멋스러운 고택은 현재 후손이 살고 있으니 불편하지 않게,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50미터쯤 더 위로 올라가면 장태산과는 또 다른 느낌의 메타세쿼이아 숲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돌아



서면 구절초 군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주머니들께서 구절초 관리에 한창이시더라고요. 내년 가을에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보는데 30분이 흘렀을까요.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구정봉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네요. 우리도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 캠핑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바비큐죠! “아빠, 아아~ 꼬기꼬기!” 고기 잘 굽는 남편이 아무지게 구워줍니다. 버섯도, 소시지도, 고구마도, 구울 수 있는 건 다 구울 작정인지 비장하기까지 하네요.

흐르는 강물을 보며 ‘물멍’을 즐겼다면, 이제는 타닥타닥 타들어 가는 불 앞에서 ‘불멍’을 즐길 차례입니다. 아이는 꼬챙이에 끼운 마시멜로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남편과 저는 맥주 한 캔을 옆에 두고 도란도란 이 밤을 즐겨봅니다. 점점 사람들의 말소리가 잦아들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더 가깝게 들리고, 알 수 없는 풀벌레 소리가 한층 짙어 갑니다. 주변에 불빛이 적은 노루벌은 별 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물달팽이와 다슬기가 많아 반딧불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램프의 불을 잠시 꺼두기로 합니다. 한층 더 선명해진 별빛. 저 멀리 수풀 위로 형광빛을 뽐내는 반딧불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서서히 날아옵니다. “저기 봐! 반딧불이 나왔다!” 조용히 속닥속닥. 공지에 불을 켰다 켜다를 반복하는 반딧불이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있자니 우주의 중심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밤이 깊어갑니다.

#### 노루벌 캠핑장

📍 서구 흑석동 530-12



###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종합테마파크’

오늘도 대전은 맑음!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바로 어린이들의 천국 오월드입니다. 그 이름도 기운찬 호랑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정문으로 향하는데요. 매표소 앞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들쭉입니다.

자유이용권을 손목에 채우고 입장합니다. 아이의 설레는 마음이 전염된 걸까요? 캬스레 두근두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네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포토존

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로 합니다. 꽃밭 가운데 선 오월드 마스크트 다정이, 다감이와 함께요. ‘찰칵’ 사진을 찍자마자 후다닥 뛰어가는 우리 말팔랑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가 손을 잡아끈 곳은 낭만을 싣고 달리는 회전목마 앞이에요.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한 색감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엄마는 사진작가를 자처합니다. 행복해하는 부녀를 카메라에 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우리 집 꼬맹이는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네 다섯 번을 타야 만족해해요. 덕분에 아빠는 조금 애를 먹었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니 그게 뭐 대수인가요.

오월드에서 가장 기대한 곳은 ‘아프리카 사파리’입니다. 대기 줄이 조금 길었는데요. 운 좋게 5분 후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기사님의 환영 인사와 함께 사파리 버스 출발!

“곰이다, 곰!” 가장 먼저 사파리 원정대를 반기는 건 검은 아메리칸 불곰 무리. 기사님이 던지는 건빵을 받아먹

기 위해 버스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두 발로 벌떡 서서 ‘비나이다~비나이다’ 연신 소원을 빌며 건빵을 받아먹어요. 불곰의 애교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아프리카의 제왕 사자예요. 우리 꼬맹이 눈이 토끼처럼 동글동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우두머리 사자가 창문 너머 아주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함께 감탄사 연발입니다. 사자 무리를 지나 뱅갈 호랑이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도 “어흥” 저기서도 “어흥”, 호랑이를 흉내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육식동물 구간이 끝나면 초식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귀를 팔랑팔랑 이는 코끼리가 풀을 뜯고 있네요. 기린은 긴 혀를 날름날름. 낙타는 꼬리를 파리채 삼아 앓아 쉬고 있네요. 폭 빠져서 보다 보니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코스가 짧았던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타조에 얼룩말, 사슴들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파리의 아쉬움을 달래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와 수달, 사막여우, 늑대 등 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주랜드예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면 동물 친구들의 식사 시간을 관람하며 사육사가 들려주는 생태설명회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늦기 전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1시 50분에 코아티 먹이 주기가 시작되거든요. 20분 단위로 곳곳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부지런히도 쫓아다닙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간단히 식사하기로 합니다. 오월드에는 곳곳에 쉴 수 있는 야외공간들이 꽤 있어요. 도시락을 싸 와서 피크닉 느낌을 내기에도 좋고요. 우린 간단히 햄버거 세트를 구매해서 소나무가 푸르른 동산마루 한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놀이기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명당인 듯하네요. 놀이동산의 붉게 물든

단풍잎 사이로 바이킹이 높게 떠올랐다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참 경쾌한 곳이란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유쾌해지고, 웃음이 나는... 가을벌에 축축했던 마음 조각들을 넣어 말린 듯, 보송보송해집니다.

식사 후에도 꽃과 예쁜 테마정원이 있는 ‘플라워랜드’와 다양한 새와 특이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 ‘버드랜드’까지! 아쉬울 것 없이 정말 알차게 돌아다녔습니다. 오월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서 놀랐어요. 말 그대로 종합테마파크! 우리 꼬맹이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마지막으로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소원터널’에 들렀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짧지만 길었던 1박 2일의 가을 소풍을 마무리합니다.

#### 오월드(O! WORLD!)

📍 중구 사정공원로 70

☎ 042-580-4820

🕒 10:30~18:00(입장마감 17:00까지)

연중무휴





[illegible]

DAEJEON STORYTELLING

Daejeon is U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  
주 소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전 화 042-270-3981  
홈페이지 www.daejeon.go.kr

출판대행 (주)이루다  
전 화 1566-7699  
홈페이지 www.iruda.pro

©대전광역시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